

일본 强占期の 禮山地域史

- 신문기사 채록/1907~1939 -

禮山文化院



발 간 사

1896년에 독립신문이 순 한글로 발간된 이래 모든 신문이 이를 따르다가 1898년에 창간된 황성신문(皇城新聞)에 의해서 국한문(國漢文) 혼용의 시대로 접어들고 그 독자대상이 중류이상의 지식층으로 정해지게 된다.

1903년부터 발간해 오던 매일신문은 1905년에 대한매일신보로 개칭되어 국한문으로 출간되다가 1907년 5월 30일부터 국문판과 영문판이 발간되었으며 항일운동의 중심에 서서 투쟁하다가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되자 일본이 강제 매수하여 1910년 8월 30일 매일신보로 개칭 발행하는데 일본 강점기 전기간에 걸쳐 국한문 신문으로는 유일하다. 그후 1919년 기미년 3.1독립만세운동이 발생한 이후 발행을 허가 받아 1920년 4월 1일 동아일보가 창간되었다가 1940년 8월 10일 강제 폐간되고 해방이후 중간(重刊)되어 오늘에 이르고 1920년 3월 6일 조선일보가 실업신문을 표방하고 창간되는데 역시 1940년 8월 10일 동아일보와 함께 강제 폐간된 후 1945년 11월 23일 복간되어 또한 오늘에 이르르고 있으며 그 밖에도 시대일보, 중외일보, 조선중앙일보가 2~4년간 발행된바 있다.

정간, 신문압수, 판매금지, 삭제 등의 고난 속에 일본 강점기를 겪으면서 발간해 낸 이들 신문의 기사 중에서 채록 가능한 기간중의 예산지역에 관련한 기사를 각 부문별로 분류해서 본서를 간행하게 되었다.

일본 압제기(壓制期)이면서 개화기(開化期) 이기도 했던 30여년간의 기사(記事)가 예산지방의 지역사 보존에 일익(一翼)이 되어줄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2002년 12월

예산문화원장 이 지 호

목 차(기사제목/기사번호)

제1절 : 행정구역 개편 및 관청건립

1. 행정구역 개편 / 8
2. 예산면사무소 확장 / 32
3. 예산군청 낙성식 / 38
4. 예산군 신양면소(新陽面所) 신축 / 62
5. 예산군 오가면소(吾可面所) 낙성 / 94
6. 예산세무서 업무를 개시 / 113

제2절 : 예산에 전화개통

7. 전화개통 / 35
8. 예산전화 축하 / 36

제3절 : 충남경철(忠南輕鐵)과 예산, 삼교발전

9. 충남경철(忠南輕鐵)문제 연결점 생탈전 / 10
10. 충남경철 계획 / 15
11. 충남경철 실현 / 16
12. 충남경철 허가 / 17
13. 경남철도(京南鐵道) 개통과 예산의 장래 / 26
14. 예산, 삼교발전 / 37

제4절 : 전매국, 은행, 회사, 극장, 시장, 창고 설립

15. 충남물산주식회사 설립 발기 / 5
16. 호서은행(湖西銀行) 설립허가 / 6
17. 호서은행의 창립 / 7
18. 예산자동차회사 창립 / 21
19. 예산 건축계 활황(活況) / 31
20. 예산에 제사회사창립준비중 / 42
21. 충남 예산에 제사회사 창립 / 45
22. 충남제사 창립 / 46
23. 양조회사 창립, 예산에서 자금 5만 5천원으로- / 86

- 24. 전매지국 예산출장소 이전 / 85
- 25. 예산농업창고 낙성식 / 92
- 26. 다년간 현안(懸案)이던 예산극장 기공 / 118
- 27. 예산시장 개량 / 47

제5절 : 예산에 전기회사 창립

- 28. 예산전기가설? 번영회에서 노력 / 67
- 29. 충남 예산에 전기회사 창립 / 68
- 30. 예산 홍성 광천에 전등 가설준비 / 93

제6절 : 교육기관 설립 및 학교·학원 동정

- 31. 덕산군 도곡(道谷) 명신학교(明新學校) 설립 / 1
- 32. 영가무도(詠歌舞蹈)의 학(學) 치성(熾盛) / 4
- 33. 충남 각학교 입학상황 / 9
- 34. 예산공립농업학교 전소(全燒) / 22
- 35. 예산공립농고 1, 2년생 맹휴(盟休) / 25
- 36. 예산공립농업학교 2학년 전부 퇴학 / 27
- 37. 충남 예산공립학교 학생 각각 귀가 / 28
- 38. 예산공립농업학교 2년생 맹휴 해결 / 29
- 39. 신양 영산일어강습소(英山日語講習所) 공립보통학교로 인가 / 33
- 40. 모범서당 개량하여 사립학술강습회로 고침 / 34
- 41. 예산농고 맹휴 / 39
- 42. 충남농업학교 승격운동 / 40
- 43. 광시면에 공립보교신설 / 41
- 44. 예산농업학교 전소(全燒) / 43
- 45. 충남 예산의 농교(農校)화재 후보(後報) / 44
- 46. 충남공농교(忠南公農校) 졸업식 / 64
- 47. 신암학교설립, 건축기공 준비 / 65
- 48. 신레원에 학교 신설 / 66
- 49. 예산읍에 유치원 신설 / 70
- 50. 예산유치원 - 양파(兩派)가 합동축전 / 71
- 51. 충남농업학교 합격자발표 / 72
- 52. 유치원 위해 예산명창회 / 74

- 53. 예산농업학교 입학시험 / 76
- 54. 예산초등학교 졸업식 일순(9개교) / 77
- 55. 충남농업학교 제1회졸업식 / 78
- 56. 충남공립농업학교 입학시험 / 79
- 57. 예산군내 공립학교수, 학급, 학생, 직원수 / 82
- 58. 충남공립농업학교 20주년 기념식 / 83
- 59. 충남농업학교 20주년 축하식 거행 / 84
- 60. 충남공립농업학교 모집시험 / 87
- 61. 충남도립농교 졸업식 / 88
- 62. 충남공립농업학교 제17회 졸업식 / 89
- 63. 충청남도 공립농업학교 졸업생은 39명 / 90
- 64. 충남농업학교 합격자 발표 / 91
- 65. 충남공립농업학교 모집시험 / 95
- 66. 충남공립농업학교 졸업생 / 97
- 67. 충남공립농업학교 합격자 / 98
- 68. 예산군내 초등교 졸업식 / 99
- 69. 덕산공립보통학교 20주년 기념식 / 107
- 70. 삼교보교 학년연장 계획중 / 114
- 71. 가야공립보통학교, 응봉공립보통학교 인가 / 116
- 72. 신양소학교부설 간이학교 인가 / 120
- 73. 중교(中校)설치 갈망 예산에 긴급문제 / 121
- 74. 예산농교졸업생 취직진학 호성적(好成績) / 122

제7절 : 이남규(李南珪) 피살사건, 의병교전

- 75. 이남규 살해당하다 / 2
- 76. 의병(義兵) 10여명이 일본견대병(日分遣隊兵) 8명과 교전(交戰) / 3

제8절 : 기미년 소요사건

- 77. 소요사건의 후보(後報) / 11
- 78. 소요사건의 후보 / 12
- 79. 소요사건의 후보 / 13
- 80. 소요사건의 후보 / 14

제9절 : 단체 및 사회동정

- 81. 학우회 강연단 강연회 / 18
- 82. 학생대회 순강(巡講) / 19
- 83. 예산청년회 조직 / 20
- 84. 예산분우(紛擾) 예산의 발전에 중대 장해 / 24
- 85. 충남 예산 번영회 정기총회 / 30
- 86. 예산기독교청년회 창립 / 69
- 87. 예산언문강습회(諺文講習會) / 80
- 88. 예산진흥회 연합총회 개최 / 81
- 89. 조선소방협회 예산지부 발회식(發會式) / 105

제10절 : 상해폭파사건 및 우국충정사건

- 90. 김영진(金瑛鎭)의 ○명 판결 불복 / 23
- 91. 상해 축하식장에서 조선청년이 폭탄투척 / 100
- 92. 상해폭파사건의 용의로 요인 다수 피체(被逮) / 101
- 93. 상해폭탄범인 가정(家庭) / 102
- 94. ○○단(團) 본부피격 안창호도 피검, 상해폭탄범 윤(尹)은 항일동맹의 일원, 윤봉길 내력 / 103
- 95. 상해폭탄사건 이춘산(李春山)이 명령 / 104
- 96. 상해폭탄범 윤봉길 군법회의 개정 / 106
- 97. 상해폭탄범 윤봉길유해 운반계획 엄중감시 / 109
- 99. 폭탄범 윤봉길유해 볼 수 없음 / 110

제11절 : 순종황제 승하

- 100. 예산농고 봉도(奉悼) 휴학 / 48
- 101. 초목도 명인(嗚咽)하는 이천만중(二千萬衆)의 호곡성(號哭聲) / 49
- 102. 삼교면민 일동의 봉도식(奉悼式) / 50
- 103. 왕전하 승하(昇遐) 발표않음에 대흥공보(大興公普) 맹휴 / 51
- 104. 순종 효황제(純宗 孝皇帝) 승하하였음으로 인산(因山)후로 예산 백일장 연기 / 52
- 105. 빈발하는 학생 불상사, 원인은 봉도(奉悼) 불허관계 / 53

제12절 : 종교 및 사회

제12절 : 종교 및 사회

- 106. 예산 보쟁(洑爭)허가로 해결 / 55
- 107. 양막예배당 신축 / 73
- 108. 김용우(金溶禹)대지주 칭송 / 115
- 109. 여러 가지로 착취(搾取)한 유사음(劉舍音) / 117
- 110. 충남도의 만주국 집단 이민 / 119

제13절 : 의료 및 약종상

- 111. 해동의원 진료무료 / 54
- 112. 의생(醫生) 및 약종상(藥種商) 시험 / 56
- 113. 오의사(吳醫師)가 준 눈 / 58

제14절 : 비와 홍수

- 114. 예산에 반가운 비 / 57
- 115. 예산에도 대홍수 / 59
- 116. 예산일대 수난(水亂) 상황 / 60
- 117. 충남 예산 홍수피해 / 61

제15절 : 예산군통계(인구, 출생, 사망, 결혼, 이혼, 교육기관, 단체)

- 118. 예산 전년 중 생산 사망 결혼 및 이혼수 / 63
- 119. 예산군 교육기관, 경제단체, 사회단체 현황 / 75
- 120. 예산군 인구통계 / 96

제16절 : 향토사의 조명

- 121. 고덕면 대천시는 감해국(感奚國)의 고도(古都) / 111
- 122. 예산의 명승고적 / 112

1. 대한매일신보 1907년 9월 26일

-德校有望-

忠南 德山郡 道谷 明新學校는 乙巳年에 進士 金東旭氏가 出義 設立하여 漢文, 宗教와 ○國, 地○, 歷史等科를 熱心 教育하고 去年 春의 語學教師를 延聘하여다가 時疫를 因하여 廢止하였더니 去年 秋에 更設하여 學徒를 募集하여 20餘名에 達하였는데 右科程을 講習한다더라.

2. 대한매일신보 1907년 10월 2일

-何故被禍-

禮山郡居 前參判 李南珪氏는 原來 博學能文하고 清節直聲이 一代士林의 選流라 年來 屏跡谷塗하고 杜門讀書하더니 無事 事端으로 日兵에게 捕捉되야 氏는 乘轎하고 其子는 徒步隨從하더니 溫陽畏岩洞 前에 至하여 父子가 一時에 殺害를 當하였다고 南來人의 傳說이 有하더라.

3. 대한매일신보 1908년¹⁾ 7월 2일

-地方消息-

去月 20日 德山郡 ○北 20里地에서 義兵 10餘名이 日分遣隊兵 8名과 交戰하였 다더라.

4. 매일신보²⁾ 1910년 9월 23일

-此是南學-

忠南 各郡에서는 詠歌舞蹈의 學이 近日來로 漸次 熾盛하여 投入하는 자가 日加 一層한다더라.

5. 매일신보 1911년 6월 24일

-忠南物產會社 ◇禮山◇-

忠南 禮山郡 居하는 財産家 成樂憲氏等 11人이 發起하여 忠南物產 株式會社를 設立하기로 周旋한다함은 既報한 바어니와 所管 官廳에 請求 承認하였는데 其 目的은 各種 物品 販賣業, 客主業, 貸金業등이오, 該會社의 位置는 禮山郡內 場岱로 指定하였다더라.

6. 매일신보 1913년 3월 6일

-禮山에 銀行設立-

충청남도 예산군 永山에서는 兪鐵相씨의 7명의 발기로 株式회사 湖西銀行 설립

1) 隆熙 2년임.

2) 1910년 8월 30일 창간된 일제총독부의 국한문관 기관지이다. 8월 22일 일제의 강압적 조인에 이어 8월 29일 국권강탈이 이루어진 뒤 당시 일제에 항거하던 민족지 『대한매일신보』를 강제 매수하여 발행하였다. 일제 강점기 말까지 일제 침략의 선두에 서서 정척수행을 선전하였다. 일제 강점기 전기간에 걸쳐 발행된 국한문신문으로는 유일하다.

에 대하여 총독부에 신청 중인바 3월 1일부로서 기 설립을 허가하였는데 同銀行營業은 역원 등을 선임한 후 총독의 免許를 受하리라더라.

7. 매일신보 1913년 3월 25일

-湖西銀行의 創立-

忠南 禮山郡에 居하는 成樂奎, 俞鎮相, 成樂憲, 京城 白完赫, 金鎮燮, 白寅基씨 등이 金融機關을 敷速케 하며 又是 實業을 獎勵할 目的으로 發起하여 禮山郡에 湖西銀行을 設立하기로 銀行會에 의하여 當局에 申請 承認까지 하였고 資金은 30 만원으로 內定하였는데 株式 應募者가 豫約으로 多數에 至하였다 하며 支配人은 元專修學校 教授 石鎮衡씨로 選定하고 其他 役員도 相當한 資格으로 推選하여 來 4月부터 開業한다는데 忠南地方에서 銀行設立은 此가 嚆矢라 하며 禮山의 將來 發展은 致賀할만 하다더라.

8. 매일신보 1913년 12월 29일

-號外, 府郡 廢合發表-

忠南 洪城郡 : 洪州 : 洪州郡(於乙方面, 興口香面, 化城面, 上田面을 除함)의 일원
: 結城郡 일원
: 保寧郡 靑所面의 內□香里, 陰村, 陽村, 靑村
瑞山郡 : 瑞山 : 서산군 일원, 태안군 일원, 해미군 일원
唐津郡 : 唐津 : 당진군 일원, 면천군 일원
禮山郡 : 禮山 : 예산군 일원, 덕산군 일원, 대흥군 일원

9. 매일신보 1917년 7월 3일

-忠南 各 學校 入學狀況-

忠南 公립보통학교 본 년 4월에 입학상황을 조사한 즉 신입학자 남 2,447명, 여 371명 계 2,818명인데 전년도 입학자 총수에 비하면 694명이 증가하고 현재 생도 총수 남 6,126명 여 574명 계 6,700명에 달하니 차를 전년도 금일에 비하면 생도 총수에 대하여 약 1천명을 증가하고 其中 여자 취학자의 점차 증가할 경향이 유함은 일반 여자 교육의 필요를 자각하는 결과라 公립 소학교에 신입학자는 尋常科 485명, 高等科 70명, 계 555명인데 전년도 입학자 수와 大差는 無하나 現在 生徒數 남 1,034명 여자 1,007명 계 2,041명이라 此를 전년도 금일에 비하면 생도총수에 約 160명을 증가하였다더라.

10. 매일신보 1918년 2월 14일

-忠南輕鐵問題-

各地에 輕鐵이 敷設되어 如何히 朝鮮을 開發하는 중인가는 이에 論할 必要도 없거니와 近時 輕鐵 敷設問題가 각지에 起하고 熱心으로 運動하여 의외에 進척되는 것은 最히 敬賀할 만한 現象이라 이에는 中鮮橫斷의 輕鐵解決, 今又, 五州輕鐵, 忠南輕鐵의 敷設에 關하여 各 關係 도시의 市民 제씨의 운동이 熾烈함은 실로 徒

爾한 事가 아니라 忠南輕鐵과 如한 것도 忠南을 開發함에 多大한 效果가 有함을 疑지 아니함이니 該輕鐵은 群山海岸 龍塘에서 起하여 忠南 西諸岸을 縫하여 京釜 本線에 連結하는 것인데 他處에 京釜鐵道 連結點에 就하여 天安, 平澤間에 曠한 쟁탈전이 개시되었다. 平澤은 京釜 連絡中 有數의 米穀集散地로 市民의 內容이 頗히 充實하고 運動은 案外에 根底가 有하여 問題解決에 有利한 듯하며 殊히 平澤은 米穀의 大集散地로 현재 重要의 驛뿐아니라 소위 中鮮輕鐵에 連絡함에도 更히 有勝한가 하겠더라.

11. 매일신보 1919년 4월 6일

-騷擾事件의 後報 ◇禮山◇-

예산군에서는 3월 ○○부터 장날이 되면 만세를 부르는 기미가 있음으로 관련의 경계를 엄중하던 중 지나간 31일, 장날에 오후 2시 쯤되어 장꾼 일동이 만세를 부르며 현병대 앞까지 가서 군중이 모인 중에 耶蘇敎 신자 부인의 호창으로 조선 독립만세를 고창한 바 경관의 제지로 해산시키고 남녀 4,5인을 체포하였더라.

12. 매일신보 1919년 4월 8일

-騷擾事件의 後報 ◇禮山◇-

예산군 예산에서는 5일 다수의 군중이 시위를 하였으므로 발포하여 해산케 한 바 이 소요 통에 군중 편에서 두 명이 죽고 기타는 무사하였더라.

13. 매일신보 1919년 4월 10일

-騷擾事件의 後報 ◇禮山◇-

예산군 당 면내에서는 지나간 4일 오후 10시경부터 예산면, 대술면, 오가면, 신양면, 고덕면 각리, 신양면 일부 약 15개소에서 각각 다수한 군중이 각각 봉화를 들고 소요하였고 5일에는 예산 장날을 이용하여 오후 1시경에 장꾼일동이 소요하며 행동이 불온하였으므로 현병분대에서 출동하여 진압한 바 군중 편에 중상자가 4,5인에 뒤적하였고 동일 오후 8시경에는 또 예산군 읍남면 형제고개와 서면 관영산과 북편 금오산과 동편 시산 4개소에서 다수한 군중이 擧火하고 騷擾하였으므로 해산케 하였으나 듣지 않음으로 부득이 발포해 해산하자 또한 비가 옴으로 모두 헤어졌다더라.

14. 매일신보 1919년 4월 11일

-騷擾事件의 後報 ◇禮山◇-

예산군 고덕면 대천시장에서는 금월 3일의 장날을 이용하여 2,3천명의 군중이 모여 시위운동을 개시하였으므로 경관이 출동하여 목하 엄중히 경계하였으나 중시 듣지 않고 일항(?-편집자) 폭행을 함으로 부득이 총을 노아 해산케 하였는데 이 소요 통에 군중 편에서 죽은 자가 1명이요, 부상자가 2명이요, 검거된 자가 7명이라더라.

15. 매일신보 1919년 7월 4일

-忠南輕鐵計劃-

群山 坂上貞信씨 등으로부터 出願한 群山으로부터 京釜線 天安에 통하는 忠南輕鐵은 今回 內地에 有力한 實業家의 贊同을 得하여 資本金 500만원의 株式會社를 設立할 事로 되어 此間에 許可願書를 忠南道廳에 提出하였는데 道廳에서는 6월 27일 總督에게 進達한 高로 연안 거주민 다수의 希望은 茲에 實現될 듯하며 地方 産業의 開發上 ○益할 배 不少하리라더라.

16. 매일신보 1919년 8월 12일

-忠南輕鐵實現-

坂上貞信, 太平德三郎氏等の 發起에 의하여 多年 唱導되던 忠南輕鐵도 悠悠 實現의 機運이 來하여 遲하여도 本月하순까지는 認可의 指令이 有할 예정이니 群山의 對岸 龍塘浦를 起點으로 하여 京釜線 天安을 經하여 牙山終點에 到할 豫定인데 沿線 各地는 俄然 活氣를 見하였으며 특히 天安內鮮人 人士는 輕鐵實現에 刮目하는 者 多한 輕鐵許可의 時期를 調査하려고 京城에 委員을 派하여 一面 實現後 經濟的 主要의 位置에 在한 群山人士의 了解를 得하려고 최근 天安학교조합장 외 조선인 유력자 1명을 擧가하여 來하는데 輕鐵實現에 存할 활동을 위한 中인데 近히 豫定沿線 各地의 代表會同하여 今後 一致方針을 豫定할 計劃이라더라.

17. 매일신보 1919년 10월 7일

-忠南輕鐵許可-

누누이 紙上에 掲載되던 忠南輕便鐵道는 地方人士의 渴望하던 바이더니 結局 去 9月 30일부로 左記地에 許可되었다더라(安城에서 起하여 溫泉里, 禮山, 洪城, 大川을 經하여 群山까지의 間).

18. 동아일보³⁾ 1920년 7월 18일

-禮山, 天安의 講演-

학우회 강연단 일행은 16일 밤 9시에 예산 유지의 환영으로 무사히 예산에 도착하였는데 동 10시부터 보통학교 안에서 강연회를 열었는데 청중은 1,500명에 달하여 매우 성황을 이루었으며 동 11시에 폐회한 후 즉시 환영회에 참석하였는데 당야 연사와 연제는 다음과 같다더라.

人生의 覺醒	金俊瀾君
教育의 必要	李東濟君
農業國에서 工業國에	金年洙君
現代의 教育	徐○君

3) 1919년 기미년 3·1 독립만세운동이 발생한 이후 일제의 文化政治라는 미명하에 우리 민족에 대한 最유정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발행 허가된 신문이다. 창간일은 1920년 4월 1일이다. 李相協 명의로 발행 허가된 「동아일보」는 公稱資本金 100만원의 株式會社로 발족하였다. 당시 사장에는 朴泳孝, 株主代表로는 金性洙(1890~1955)가 되었고 기타 78명의 발기인이 있었다. 본래 青年新聞으로 허가되어 조선민중의 표현기관, 민주주의의 지지, 문화주의의 제창 등을 社是로 하여 자주독립의 고취, 민족 계몽에 이바지하여 일제의 탄압을 자주 받기도 하였다. 1936년 8월 1일 「日章旗 抹消事件」으로 정간되는 등 1940년 8월 10일 강제 폐간되기까지 무려 5차례의 정간처분과 2,000회이상의 발매금지, 신문압수 489회, 판매금지 63회, 삭제 2,423회를 당하였다. 해방이후인 1945년 12월 1일, 宋鎮禹사장아래 重刊된 이후 오늘에 이르렀다.

그의 일행은 17일 오후 2시에 천안에서 강연을 하고 동일 야행열차로 경성에 도착할 예정이라더라.

19. 매일신보 1921년 8월 7일

-學生大會巡講, 忠南의 大都會, 禮山에서 1講演-

예정한 일자가 있음으로 湖西 제1단은 섭섭히 온양을 등지고 雨中에 遙遙한 西野를 돌아 夕陽에야 禮山에 도착한 후 즉시 當地 人士의 盛大한 歡迎會에 參席하였다. 禮山은 忠南 屈指의 都會地요, 穀物과 金融이 풍부하여 상업이 가장 발달한 곳이다. 그래서 200여만원의 巨額을 投한 湖西銀行 本店이 있으니 수십만원의 資本을 가진 忠南商業會社가 有하여 商權 기타는 朝鮮人의 장악한 바 됨은 실로 감사하며 그 前途를 奉祝하기 마지않는다. 그러나 다만 遺憾됨은 이만치 發達한 곳에 普通程度이상의 私立學校같은 것이 없음이다. 翌日 하오 9시 20분에 當地同窓會 후원으로 公立普通學校에서 李正○씨의 사회 하에 開演케 됨에 本郡守이라 聽衆은 800여명에 달하였다. 滿場 박수에 奎一씨는 「尙今도라」는 文제로 方仁根씨는 「自我를 實現하라」는 文제로, 李在坤씨는 「잠이 들까 念慮라」는 文제로 각각 1시간씩 精力을 다하여 講演하고 同 11시 30분에 閉會한 후 人士의 따뜻하고도 親切한 餞別會가 있었다. 明日은 靑陽郡으로 향할 豫定……(이하 생략-편집자)

20. 동아일보 1921년 10월 20일

-禮山青年會 組織-

忠南 禮山郡에서 數年來로 各樣團體를 組織하여 或은 勞動共濟支部, 又是 俱樂部등이 有하였으나 設立者의 薄弱한 意志로 能히 支持치 못하게 된지라. 今般 當郡 有志 成觀永, 李鍾○外 諸氏의 發起로 青年會를 組織하여 友誼를 敦篤하며 文化를 향상코자 熱心 努力하는 中이라더라.

21. 매일신보 1921년 11월 11일

-禮山自動車會社-

충남 당진군 李種寬씨의 종래 경영하던 자동차부와 청양 자동차조합은 去 1일로써 합병을 하여 주식회사를 조직하여 규모를 대확장하여 지방교통의 편의를 圖하기로 되었다는 바 자본금은 10만원으로 영업선로는 예산을 중심으로 하여 예산 천안간, 예산 청양간, 예산 당진간, 예산 서산간, 청양 홍성간, 당진 漢洋간의 6區이며 본사는 예산에 置하기로 하고 창립 임시사무 취급은 청양군에 置하여 來月 초로부터 營業을 개시할 터이라는 바 純然한 지방인사로서 地方啓發을 위주하여 설립함이라더라.

22. 동아일보 1922년 2월 14일

-禮山公普校 全燒-

지난 11일 오후 10시 30분 경에 예산 공립 농업학교에서 불이 일어나 교실 사무실 리과실 등등 校舍를 전부 소실한 후 약 두시간 쯤 뒤에 겨우 진화하였는데 출화

원인은 차 끓이는 가마솥 연돌에서 불길의 새어나와 교실 기둥에 연소된 듯하며 손해 액은 아직 자세치 않으나 대략 사만 원 이상이 될 듯하다는데 그 건물은 화재 보험에 부쳤다하며 교수는 당분간 생도 기숙실과 蠶室에서 할 터이라더라.

23. 동아일보 1922년 5월 18일

-金佐鎭 部下 9名-

忠清南道 禮山郡 插橋面 昌亭里 金瑛鎭의 ○名은 제령 위반으로 공주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판결이 언도된 것을 불복하고 京城覆審法院에 공소하였는데 김영진 등은 조선 독립사상을 품고 작년 겨울에 중국 길림성으로 가서 군정부 총사령관 金佐鎭의 부하가 된 후 조선안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여 보내기로 하고 그 해 3월 초순에 육혈포와 탄환을 가지고 조선 내지에 들어와서 보령군 대천면 화산리 黃五顯의 집에 들어가서 육혈포로 위협하고 현금 820원을 강탈한 것을 위시하여 작년 봄까지 전라남북도를 돌아다니며 수천원을 거두어 간도로 보내다가 발각 체포된 것이라더라.

金瑛鎭 懲役 10年, 盧載喆 懲役 9年, 趙炳彩 懲役 8年, 李商雪 懲役 7年, 李昌鎬 懲役 6年, 金明秀, 柳○宗, 李完伯, 金伯順 懲役 各 5年

24. 동아일보 1922년 6월 14일

-大問題인 禮山紛擾, 禮山の 發展에 重大한 障害-

충청남도 예산군은 종래로 그 도내에 우수한 도회이나 시가가 산간에 있어 교통이 불편함으로 자연히 범백의 발전이 다른 도회에 비하여 늦어 왔는데 금년에 京南鐵道가 예산까지 개통되어 그 지방의 교통이 비상히 편리하게 되었으므로 재류관민이 성적만 드릴 것 같으며 급속한 발전을 가히 기약할 것이라 하여 그 지방유지 인사는 이번 기회에 발언의 기초를 세우고자 여러 방면으로 진력한 결과로 공립농업학교의 이전과 보통학교의 신축과 급설 전화의 개통과 신구시가를 연락하는 도로의 신설 등 여러 가지 새 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예산 지방의 면목이 일신하게 될 가망이 확실하나 한편으로는 개인의 감정으로인지 시대에 불합치함으로인지 일부에는 이러한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아무 학식이 없는 다수 주민을 선동하는 폐단이 생겨서 사업진행에 여러 가지로 방해가 되어 이러한 일에 진력하는 인사들은 도리어 여항의 원망을 받고 예산의 전도를 탄식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최근의 한 전례를 들건대 정거장과 구시가를 연락하는 도로를 신설하는 공사는 면협의 회의 결의로 면민과 부역을 내이게 하여 진행하는 중인데 신 사업 반대파의 한사람인 모구장이 부역 나온 인민에게 향하여 이 도로공사는 면협의원 기타 모모가 면사무소와 군청과 연락하여 사사 이익을 도모하라는 욕심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을 한 까닭에 장래에 이익 있을 것은 생각지 못하고 목전의 부역을 싫어하는 다수 인민은 이 말에 선동되어 성군 작당하여 면 협의원 모씨의 집 내정에까지 돌입하다가 경찰서장의 설유로 사실이 그렇지 않음을 깨닫고 간신히 해산하였는데 이 일로 인하여 신 사업에 열심이던 인사는 점점 뒤로 물러서라 하며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의 진행에 장애가 적지 아니하여 예산지방의 발전할 좋은 기회를 공연히 잃어버릴 뿐아니라 지방 안에 이같이 아름답지 못한 일이 생기는 것은 장래에까지 폐해를 끼치는 것이라 하여 충남도청에서는 상당한 조치를 하고자 사실을 자세히 조사중이라더라.

25. 동아일보 1922년 6월 26일

-禮山公立農校 1, 2年生 盟休-

경북(?-잘못된 듯함, 편집자) 예산공립농업학교 1, 2학년 생도들은 去 22일에 돌연히 同盟 休學을 하고 寄宿舍 학생들은 전부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그 내용을 들은 즉 선생들이 教授 時間을 지키지 아니하고 生徒의 질문을 잘 설명해 주지 않는다 하며 또 原口 선생은 너무 애정이 없이 조금만 잘못된 일이 있어도 退學하라고 야단을 한다 하며 학생이 무슨 회의를 한다하면 학교 당국에서 처리치 아니하고 경찰서에 의뢰한다하며 기숙생에게 오는 書信을 학교에서 떼어 본다는 등의 이유이라는데 교장의 말을 들은 즉 '2학년생도 중에 不穩한 생도가 있어서 煽動을 시키는 모양이오. 이번 休學은 학교에 대한 정당한 요구조건도 없이 上學을 아니함으로 級長을 불러 물은 즉 교수들 열심히 아니한다는 등 몇 가지를 말할 뿐으로 정식의 진정도 없이 각각 돌아갔으며 경찰에 의뢰한 일은 지난 因山 때에 휴학을 선동한 학생을 조사하라고 의뢰한 일은 있으나 그 외에 다른 것은 없고 선생이 심하다고 하는 것은 교수 받는 생도들이 교육을 이해치 못하는 까닭이라고 말하였다더라.

26. 매일신보 1922년 7월 2일

-京南鐵道 開通과 禮山의 將來-

禮山은 忠淸南道의 一郡으로 道의 중앙에 位하였으나 충남의 유수한 市場이요, 且米의 產地로 著名한 곳이다. 그러나 從來오, 즉 交通의 불편으로 인하여 其發展을 如意히 하지 못하였음은 한낫 유감으로 생각하였던 바 다행히 今回 京南鐵道가 開通하였음에 從하여 禮山은 新禮山이 될지며 禮山의 장래는 실로 長足の 進보를 遂할 것을 상상함에 예산을 위하여 다행히 此에 遇할 者 〇無하도다. 鐵道는 京釜線 全安역에서 分岐하여 온양온천을 經하여 禮山까지 개통되었으나 更히 延長하여 洪城, 廣川, 保寧, 舒川을 經하여 群山 對岸까지 至할 것은 近한 將來의 事이요, 既定의 計劃임으로 禮山은 此鐵道로 因하여 比로소 開發의 〇性을 발휘함에 足할지요, 此鐵道에 依하여 北은 天安으로 京釜線과 繼續하고 南은 금강의 連絡船에 依하여 米의 群山과 相接하여 更히 群山線과 연락하게 됨으로 大平野를 控한 禮山의 장래는 實로 刮目하여 特한 位置가 充分하도다.

◇ 湖西銀行

禮山에는 他地方에 一大誇張거리를 有하였으니 卽 既히 大正 2년경부터 金融機關이 創設됨이라 此는 禮山의 先覺者 成樂憲씨등이 明治 44년에 忠南物産株式會社의 設立에 胚胎된 것으로 최초는 10만원의 資本으로 營業을 開始하였다가 大正 2년에 至하여 차를 湖西銀行이라 改하고 資本金 30만원의 株式會社로 하였다가 更히 大正 8년에는 일약 백만원으로 增資하였으되 同行의 營業成績은 頗히 良好하여 資本金 百만원으로는 부족을 感하겠음으로 別로이 資本金 百만원의 京南興業株式會社를 設立하여 姊妹會社의 關係로 有無를 相通하다가 其後 此를 合併하여 資本金 200만원의 銀行으로 目下拂込資本金 71萬 5천원으로써 營業을 進행중인 巴 預金이 百만원이요, 貸出이 170만원 荷爲替扱이 6,7백만원에 至한 地方銀行으로 특별한 好成績을 擧하여 配當도 年 9分이요, 積立金 百분의 20이상의 好

現狀을 示하였고 현재 支店으로는 京畿道에 安城, 忠淸南道에 天安, 洪城, 廣川
今 4개소를 有하여 忠南地方의 金融經濟上에 多大한 公憲을 위하였다 하리로다.
又 京南鐵道會社와 湖西銀行과는 밀접한 關係가 있어서 京南鐵道 沿線은 즉 湖西
銀行의 營業區域이 되었을 뿐아니라 개통된 이후의 鐵道收入도 전부 호서은행에
예금하기로 되어 互相 提携하게 되었음은 더욱 禮山의 將來에 取하여 中대한 使
命을 有하였다云치 아니치 못하겠도다.

◇ 期成組合

今回 京南鐵道 禮山驛을 豫定計劃을 변경케 하여 예산읍내 부근 山城屋에 설치케
되었음은 確實히 예산의 誇張거리인 동시에 吾人은 期成組合의 활동에 대하여 敬
意를 표치 아니치 못하겠도다. 聞見한바에 의하면 當郡 鐵道會社의 計劃은 禮山
停車場과 읍내 시장간의 거리는 약 반리이상이나 距하였을 뿐 아니라 天安, 禮山
間 도로는 迂迴의 弊가 有하여 禮山의 발전상 大대한 장애를 與하겠음으로 茲에
期成會를 조직하여 1만여평의 정착장 기지를 회사에 寄附하고 예산읍 최근지로
이전하기로 계획을 變改케 하였다. 其後에 郡當국에서는 此의 直通道路를 計劃하
고 面協議會의 諮問을 구하여 新作路를 作하게 되었는데 일부 ○了解者가 사소한
감정으로 기성회 총회장인 成樂憲씨가 자기의 私益이나 取한 것같이 오해하여 불
온한 행동에 出하였음은 禮山위하여 실로 哀惜不已하였으며 追聞한 바에 의하면
그것도 多數 民衆의 所爲가 아니오, 일개 선동자가 있어 그 같은 불상사를 야기
한것인데 주모자는 상당한 처분을 받았단한 즉 자연 氷○한 시기가 도래하겠고
결코 유산 계급과 무산계급과의 분쟁이라 할만한 문제는 아닐 듯 하다.

◇ 農業校移轉

高等普通學校가 公州에 設置하게 됨에 禮山有力者인 모모는 此機를 利하여 公州
農業學校를 禮山으로 移轉하려고 무한한 노력을 하였으니 즉 이전에 대하여 총비
용이 수만원 이상에 달하는 지라, 당시 유력자 제씨는 비용의 다과는 불구하고
예산지방 발전책에 대하여는 幾何라도 자담하겠다 하여 호서은행장 金鎮焚씨의
內鮮 有志 모모는 3만 5천원의 막대한 金錢을 捐출하여 道當局과 교섭운동한 결
과 필경 이전하기로 되었는데 기타 1만여평을 읍내 요지에 선정하고 工事에 착수
하기로 착착 진척중인즉 예산의 장래에 대하여 가일층 이체이라 云爲하겠도다.

◇ 實業協會

內鮮人 有力者와 官公聽의 主腦者로 組織된 것으로 禮山 各種시설에 대한 유일한
자문기관이니 예컨대 產業, 教育의 獎勵, 衛生思想의 鼓吹, 施政宣傳, 勤儉貯蓄獎
勵 등이 蓋該協會의 主要事業이라 同地 發展策上 不可無의 機關이라 하겠더라.

◇ 紛忙한 建築

당지의 건축계는 실로 大分망을 極하였으니 公비 10만원의 湖西銀行의 新建築을
위시하여 警察署의 普通學校, 農業學校의 新건축 등으로 若 此等 工事의 竣成을
告하는 ○에는 예산의 면목은 일신하겠으며 從하여 예산의 전도는 실로 融融하다
하겠는바 吾人의 茲에 感한바는 유독 예산뿐아니라 何地方을 勿問하고 지방 인사
는 此等事業家를 陰助하여 여차 인물로 益益 盡力하도록 함이 지방을 위하고 자
기를 위함이 될진즉 더욱 보호를 하는 동시에 사업가된 자는 又一層 분발하여 初
志를 不撓함이 可하다 하노라.

27. 동아일보 1922년 7월 4일

-2學年 全部 退學-

既報 = 禮山公立農業學校 1, 2학년생의 동맹 휴학에 대하여 7명은 퇴학을 시키고 92명은 정학을 시켰었던 바 1학년 생도들은 지난 30일부터 등교 수업하고 2학년생은 지난 1일에 교장에게 대하여 休學 이유를 들어서 학교 당국의 不熱心한 사실을 들어서 일일이 질문하고 7명을 퇴학시킴도 너무나 가혹한 일이라고 말한 즉 학교 당국에서는 학생의 주장은 전부 부당하다면서 학교에서는 過失이 없다함으로 2학년 생도는 전부 퇴학 원서를 제출하고 나왔다는데 어제까지 이르도록 학부형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더라.

28. 동아일보 1922년 7월 8일

-學生은 各各 歸家-

既報 = 충남 예산 공립학교 2년생의 退學願 제출을 접한 예산농교에서는 학부형에게 아래와 같은 통지를 하여 학부형을 공포케 하였다더라

제 2학년생은 日日 惡化하여 愁曲히 說諭하여도 何等 悔改의 태도가 보이지 아니하니 今일에 지하여서는 전혀 경찰의 주목할 상태에 있어 교양상 대단히 憂慮할 바라 云云하여 학부형을 공포시키는 동시에 退學生의 旅宿을 일일이 訪하여 말하되 내무부장은 퇴학 수리를 하려 하나 차후에 퇴학생이 就校를 원하면 귀치 않으니 保證人까지 연서하여 退學願을 제출하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데 그러나 퇴학생들은 하등 악화의 形迹이 없으므로 各各 귀가하였다더라.

29. 동아일보 1922년 7월 16일

-盟休 解決-

既報 = 예산공립농업학교 2년생 동맹 퇴교에 대하여 퇴교 생의 부형회에서 무조건으로 학교당국에 복교시킴을 교섭한 결과 동 교에서 취학을 許하였으므로 去 12일부터 續續 취교하는 중이오, 退學處分을 당한 7명은 결국 犧牲될 뿐이었다라.

30. 동아일보 1922년 7월 22일

-繁榮會 總會-

忠南 禮山 繁榮會에서는 지난 17일에 定期總會를 開하고 會長 成樂憲氏의 開會辭가 있는 후 順序대로 會務를 아래와 같이 進行하였다더라.

1. 地方法院 支廳 設置에 대한 經過, 禮山繁榮會에서 今春이래 公州地方 京城覆審 兩法院과 總독부 法務局에 대하여 忠清南道 西北地帶의 中心되는 禮山에 법원지청 설치의 陳情을 한 바 이에 대한 各關係當局은 그 陳情의 事實은 同感하는 바이나 裁判所 位置變更은 容易한 事가 아님으로 아직 後日에 미룬다는 解答에 이른 經過報告에 의하여 그 案件은 留保하기로 決定되고
2. 禮山 九萬浦間 道路 架橋事件 陳情 經過는 道當局에서 不遠間 實施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보고가 있었고
3. 禮山公立農校 實習地寄附件은 동 교가 13년도부터 5학년제로 延長됨을 따라 실

습지확장을 明年度에 실행할 것이나 금번에 同校 校舎를 燒失하였으므로 道當局에서는 십만 원의 거액을 예산 외로 동 교 교사신축과 실습지 확장 수도 개량 등을 설계하였으므로 동 교가 비록 충남공립농교이나 예산에 있음으로 동 교와는 특수한 관계상 확장지대가(5천원 이상)와 낙성 연비합 6천원은 예산에서 부담 기부하는 것이 예산의 성의를 표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동 기부 건이 가결되어 그 기부금 모집방법은 繁榮會 役員會(회장과 이사 5인)에 委任하기로 可決되고 보결 이사 선거에 대하여 조선인 일본인 문제와 전형에 대한 이론이 있었으나 전례(조선인 회장 1인 이사 2인 일본인이사 3인)대로 하여 일본인 보결 이사를 選定하였고 예산공보 증축교사(학부형회에서 자담하여 조선건축으로 기부한 것을 도에서 허가치 아니한 것)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으나 이는 사실상 교사로 사용될 뿐 아니라 도에서 인수하기로 되었다는 회장의 답변을 뜻하고 相談役 鄭稷謨(禮山郡守)씨와 ○島一二(農校長)씨의 祝辭가 있는 후 閉會하였더라.

31. 매일신보 1922년 11월 15일

-禮山建築界 殷盛-

예산은 京南鐵道の 開通에 伴하여 各方面으로 進展을 보하는 중인데 今夏 이래 驛前 運送店의 雲集은 可○한 者이오, 11월에 市街設計가 발표되자 鄭男爵의 宏대한 新邸宅도 착착히 進하고 湖西銀行의 宏壯한 社屋은 12일 建築祝賀會를 行하였고 竝히 警察署는 先月에 新築 農學校도 又 6만원으로 기초공사 중이오, 普通學校는 11월 중에는 建造중이오, 引續하여 登記所, 金融組合도 建築 준비중이오, 又 地方官民, 內地人은 2천원으로 大神宮을 建立코자 하는 중이오, 小學校도 來春早々に 增築할 터이오, 隨泊峙의 郵便所는 銀行附近으로 移轉한다 하니 禮山은 실로 可驚할만큼 活況을 보하는 중이더라.

32. 조선일보⁴⁾ 1922년 12월 16일

-面事務所 比前擴張-

禮山군 禮山面事務所는 元來로 當地 最西隅인 傾斜地에 在하여 官民間 交通의 不便利와 且 狹窄의 嫌이 有하던 바 今般 본 면장 幸益敎씨의 열심 주장한 결과 面協議員會에서 결의하여 금 4,500원에 달한 巨資를 投하여 元湖西銀行 營業所 이던 建物及 敷地를 전부 매입하여 客月 11일에 面事務所를 移轉하였는데 위치가 當地 시가 最中央에 在하여 人민의 편익을 圖케 하고 건물의 구조된 規模及 奇麗은 각 면사무소 중 제 1위를 점하였다더라.

4) 일제 강점기 우리의 민간언론지로서는 처음으로 1920년 3월 6일 창간되었다. 그 배경을 大正實業觀望會로 하여 출발하였는데 당시 제계의 거두 朝鮮商業銀行 頭取 趙鎮泰를 사장으로 하고 권 집국장에는 대정친목회의 중견인물인 崔岡이 앉아 實業新聞을 표방하고 나섰다. 초창기 대정친목회의 친일성 때문에 한민족의 지지를 얻지는 못하였으나 1920년대 한글보급운동(문맹퇴치운동), 신간회의 활동상 등을 비교적 상세히 소개한 바 있다. 일제의 잦은 탄압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1932년 方應謨를 비롯한 서북출신의 유지들이 가세하여 경영에 안정을 가져왔다. 하지만 1940년 8월 10일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에 의하여 동아일보와 함께 강제 폐간된 이었고 1945년 11월 23일 복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33. 조선일보 1922년 12월 16일

-新陽面有志의 教育熱-

禮山郡 新陽面 有志 제씨는 본 면에 教育機關이 無함을 遺憾으로 생각하고 今春부터 英山日語講習所를 설립하고 다수의 生徒를 收容 教授 중이던 바 일층 완전한 기관을 구조케 위하여 본 면내인민으로 하여금 學費를 조직하여 春秋에 각 계원에게 粳麥 1두씩을 收合하고 其外增産 정도에 의하여 기부금을 모집한 결과 총액이 萬圓에 達한지라 目下 面 中央에 基地 2,000여 평을 매수하여 靑壯한 교사를 건축 중인데 明年度에는 公立普通學校로 認可되기를 먼 전체가 희망하는 바이며 주무 제씨가 우리사회를 사랑하고 장래 유망의 청년을 위하여 주야를 불구하고 진력한 결과 去 10월 정오에 성대한 上梁식을 行한데 該地人士는 발기 제씨의 열성을 稱頌不已하며 役員의 氏名은 左와 如하더라.

棟長 : 金玄基, 顧問 : 李秉國, 幹事 : 尹在信, 朴泰永, 申哲永, 李在德, 尹估模, 李東珪, 李鍾晚, 趙成熙, 李昌載, 金元植, 成鼎基, 尹普永

34. 매일신보 1923년 5월 31일

-忠南書堂改良-

忠清南道에서는 從來 模範書堂의 組織을 變更하여 私立學術講習會로 고치어 入學難 救濟策에 實績을 擧하도록 去 25일 각군에 左와 如한 〇牒을 발하였더라.

1. 模範講習會는 前年度 模範書堂을 變更한 것을 選定하거나 又は 新히 選定함도 無妨함. 단 1군 2회소에 한함.
2. 模範講習會는 左記各項에 해당하는 者를 云함. 講師 1인은 普通學校 囑託敎員과 동등이상의 학력이 有한 者. 敎科目은 日語, 朝鮮語, 漢文, 算術의 기타. 會員은 30명이상. 會費는 每月 1인 1원 이내
3. 郡守는 模範書堂의 選定을 마친 후 左記에 의하여 道知事에게 報告할 일

35. 조선일보 1923년 10월 25일

-禮山에 電話開通-

忠南 禮山郡 有志 제씨의 진력한 결과 本都市內 전화가 10월중에 개통되겠다 함은 本報에 掲載한 바어니와 本月 18일부터 전화공사에 착수한 바 不日間 開通되리라더라.

36. 동아일보 1923년 12월 1일

-禮山電話 祝賀-

충남 예산은 京南鐵道의 開通으로 日益 발전하는 바 종래 시내전화가 無함으로 일반은 크게 유감이더니 예산실업협회의 極力 활동으로 去 20일부터 시내전화개 通되었음으로 今 30일 當地 湖西銀行 樓上에서 성대한 축하식을 行한다고.

37. 동아일보 1923년 12월 1일

-禮山, 插橋 發展-

예산군 삼교는 광막한 평야에 수가의 酒店이 있음에 不과하더니 京南鐵道의 開通

과 동시에 停車場 소재지가 됨으로 불과 수 개월내에 근 100호의 가옥을 일신하게 신축하여 준비한 시가를 성하였고 장래 더욱 발전되리라고 일반은 추측하더라.

38. 동아일보 1923년 12월 1일

-禮山郡廳 落成式-

충남 예산군청은 기간 2만여 원의 工費로 신축 낙성하였으므로 거 26일 성대한 落成式을 거행하였더라.

39. 동아일보 1924년 3월 2일

-禮山農校盟休-

예산에 있는 충청남도 공립농업학교 생도 전반이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는데 그 내용은 朝鮮實業學校 教育令은 5년 제로 발표되어 실행한 학교가 조선 전도 15교 중에 5교인데 이 학교 승격은 도 당국에 누차 요구하였을 뿐아니라 금년도 評議會에서까지 議案을 提出하였으나 도 당국은 숙제로 돌리고 여하한 結案이 없으므로 盟休하였다는데 동 교 졸업생은 단결하여 도 당국에 진정코자 하며 지방인사는 昇格期成會까지 조직하여 후원하기로 준비 중이라더라.

40. 동아일보 1924년 3월 20일

-忠南農校 昇格運動-

현재 예산에 있는 忠南農業學校는 16년 전에 설립되어 그간 12회에 300여명의 졸업생을 낸 학교이나 학기가 너무 단기임으로 농업에 대한 지식이 불충분함으로 유감으로 생각하여 그 학교 졸업생 일동의 발기로 모교 昇格運動期成會를 조직하여 동회의 결의로 작년 9월 23일 도 당국에 3년제를 5년제로 승격하여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한 바 도 당국에서는 농업은 상업같이 중요치 아니함으로 상업학교는 승격할 필요가 있으나 농업학교는 승격할 필요가 없다하여 냉담한 태도를 보임으로 기성회에서는 도 당국의 불공평함을 분개히 여겨 오던 바 지난 6일 오전 11시에 천안 읍내리 天安靑年會館안에서 동교 졸업생 총대회를 개최하고 임시의장 尹廷漢씨의 사회로 具滋顔씨의 취지설명이 있는 후에 충남 농업학교 승격문제로 토의한 결과 충남 도 당국에 대하여 어디까지든지 목적을 달하기로 일치 가결되어 執行委員으로 金雄珏, 辛應教, 徐昌淳, 鄭樂勳, 具滋顔, 尹廷漢, 李丙雨씨를 선거한 후 오후 3시에 폐회하였더라.

41. 조선일보 1925년 6월 1일

-光時面에 公立普校新設-

忠南 禮山郡 光時面은 1,300여戶나 되는 面으로 教育機關이 無하여 一般은 遺憾으로 생각하여 오던 바 面內 有志 李容宰, 李容七, 張基源의 제씨의 發起로 期成會를 조직한 후 열성으로 活動努力한 結果 1만 5천원의 寄附金을 收集하여 當局에 公立普通學校의 認可를 得하여 校舍를 建築하고 去 4월 21일에 落成式까지 舉行하였더라며 男女學生이 벌써 200여명에 達함으로 面內一般은 有志諸氏의 熱誠을 感歎不已한 다더라.

42. 조선일보 1925년 8월 31일

-禮山에 製絲會社, 創立準備中. 朝鮮人の 運營으로-

고치마는 時期를 當하면 蠶○무역의 ○本이 忠淸南道內로 들어옴으로 道內의 蠶○은 모든 原料品이 그대로 外地로 나감으로 그의 實益은 朝鮮人 손을 떠나게 되어 이를 恒常 遺憾으로 생각하던 바 禮山에 있는 成樂奎, 金鎮燮의 諸氏의 發起로 수백 만원의 資本을 出資하여 禮山에 製絲會社를 創立하리라는데 9월 상순에 創立總會를 열고자 방금 준비에 奔忙中이라더라.

43. 조선일보 1926년 2월 13일

-禮山農校全燒-

11일 오후 10시 20분경에 예산농업학교 小使室에서 불이 나서 교실 전부가 탔는데 원인과 손해는 방금 조사중이라더라

44. 조선일보 1926년 2월 17일

-忠南 禮山の 農校火災 後報-

既報-2월 11일 오후 10시 40분 경에 예산 읍내에 있는 충청남도 공립 보통학교.....와 같이 出火한 모양이며 예산 삼교리와 주교리 신례원의 4개 소방대가 총출동하여 그 이튿날 오전 정시 20분경에 간신히 진화한 바 원교실은 全燒가 되고 기숙사감실급 작업실은 근근 보존하여 그곳에서 13일부터 인속하여 교수하는 중이며 기타의 교원과 생도는 한 사람도 부상자가 없으므로 불행 중 다행이요. 금번에 소화된 교실은 26,000원의 화재보험에 들었다더라.

45. 조선일보 1926년 3월 28일

-忠南 禮山에 製絲會社 創立-

昨年 9월부터 忠南 禮山郡 禮山面 예산리에 있는 湖西銀行에 忠南製絲株式會社 創立事務所 看板을 붙이고 成樂憲씨의 15인의 發起로 總株數 1만주, 總資本金 50만원 豫定으로 製絲會社를 설립코자 하는 중 3월 초순까지 총 주수가 모집되어 去 23일에 創立總會를 開하고 定款까지 작성 통과하였다더라.

46. 조선일보 1926년 4월 4일

-忠南製絲創立-

去年 9월부터 禮山郡 禮山面 禮山里 湖西銀行事務所取締役 成樂憲씨의 15인의 發起로 忠南 製絲株式會社를 창립하기로 하여 創立事務所를 忠南 禮山郡 예산면 예산리 호서은행내에 두고 자본금 50만원으로 株總數 1만주로 하여 爾來 株式을 募集하던 중 創立期間을 大正 15년 3월 30일로 定하고 1株 金50원으로 1회 拂入金 12원 50전으로 정하였던 바 지난 3월 1일경까지 총 주수 1만에 달하여 去 3월 23일 예산읍내 호서은행 上○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는 바 의장 姜斗永씨 사회하여 1. 創立經過報告 1. 定款承認 1. 重役選舉가 있었다는데 其役員은 如左하다더라.

◇役員

(取締役)(牙山) 姜斗永, 柳翼暎(唐津), 朴慶來(瑞山), 李弼殷(洪城).....

47. 조선일보 1926년 4월 20일

-禮山市場改良-

昨年夏間부터 禮山繁榮會에서는 市民大會를 開催하고 市區改良을 위하여 其間 노력한 결과 敷地와 기부금 등이 예정과 같이 취합된 바 수일 전부터 市區改築에 착수하여 착착 진행 중이러는데 米穀廩은 柴炭場으로 柴炭場은 雙松亭으로 魚○廩은 ○市場으로 果物廩은 前麻廩 부근으로 雜貨廩은 전과 如히 하고 牛市場은 現市場 越境으로 이전하여 露店 기타 건물을 방금 건축중이며 白木廩에서 米廩으로 도로를 貫通하기로 공사중이라더라.

48. 동아일보 1926년 5월 1일

-各學校 休學 奉悼, 禮山農校生-

예산농업학교 생도 일동은 27일 오후 5시경에 금오산에 올라가 봉도식을 애통하며 거행하고 돌아와 그 이튿날 휴학시켜 달라고 교장에게 청하였으나 허락치 아니함으로 일반 생도들은 國喪난 때에도 상학한다고 학교에서 통곡을 마지아니하여 어쩔 수 없이 3일 간을 휴학하였는데 일반생도들은 일제히 흰 테를 학생 정복 소매에 두르어 상복을 표하였더라.

49. 동아일보 1926년 5월 2일

-草木도 嗚咽하는 2千萬衆의 號哭聲-

插橋에서도 지난 28일부터 일제히 撤市하고 산 위에 올라가 望哭을 하였다더라.

50. 동아일보 1926년 5월 5일

-草木도 嗚咽하는 2千萬衆의 號哭聲-

예산군 삼교면 新佳里 後花山에서는 去 4월 29일 하오 4시에 同面長을 비롯하여 면민 일동의 奉悼式이 있었다 하며 興湖館 妓生 一同의 望哭이 있었다더라.

51. 조선일보 1926년 5월 6일

-大興公普盟休-

충남 예산군 대흥 공립보통학교에서는 지난 1일부터 생도 전부가 돌연히 동맹휴학을 하고 장학치 않는다는 바 이제 그 자세한 사실을 듣건데 동교 교장 山本武二는 금번 왕전하의 승하하셨다는 발표가 대흥에 온지 이미 일주일이나 지나도록 봉도식은 추후 문제에 부치고라도 날마다 있는 朝會나 夕會에 도무지 발표조차도 없음으로 전기 전부는 이에 분개하여 동맹휴학을 하고 봉도하는 뜻으로 산에 올라가서 望哭을 하였다더라.

52. 조선일보 1926년 5월 9일

-禮山 白日場 延期-

既報-本報 禮山支局 主催인 禮山 白日場을 5월 19일에 개최하기로 되었던 바 今般 純宗 孝皇帝 昇遐하였음으로 因山후로 연기된 바 6월 14일(陰曆 5월 5일)

에 前報와 같이 하겠고 賞品은 1등 2인, 懷中時計 1개씩, 2등 3인 漢製 詩傳 1
秩씩, 3등 4인 典故大方 1秩씩이라고.

53. 동아일보 1926년 5월 9일

-頻發하는 學界의 不祥事, 原因은 奉悼 不許關係-

◇德山公普◇

충남 예산군 덕산 공립보통학교의 5, 6학년 생도는 고왕 진하의 승하하심에 대
하여 봉도의 휴학을 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4일부터 동맹휴학을 하였다는
데 나흘동안 봉도의 뜻을 표한 후 십일부터는 여전히 등교하리라더라.

54. 조선일보 1926년 5월 12일

-海東醫院 診察 無料-

충남 예산군 예산시에는 醫療機關이 부족하여 一般은 此를 遺憾이던 바 今回에 醫師
吳道泳씨가 海東醫院을 설립하여 大正 15年 5월 7일에 開業한 바 吳醫師의 親切 ○
寧함을 一般의 贊成하는 동시에 每日 환자가 5-60명씩 運至하며 診察料도 受取치 아
니한다하여 患者가 運至함으로 미처 치료를 받지 못하고 休待室에 人海를 이룬다고.

55. 조선일보 1926년 5월 12일

-禮山 汎爭, 許可로 解決-

既報-충남 예산군 예산면 夕陽里, 觀爵里 兩里에서는 일대 汎水戰이 있었던 바
경찰서와 군 당국에서까지 진정을 하는 동시에 군수와 警察署長이 合席하여 兩里
關係者를 招來하여 和解에 노력하였으나 觀爵里에서는 음료수에 관계가 있다고
절대로 汎를 못 막게 하겠다고 하던 중 5월 3일 兩汎 許可가 충남 도청으로부터
교부되었음으로 夕陽里에서는 該汎를 다시 修築코저 방금 공사를 進行중이라고.

56. 조선일보 1926년 5월 19일

-醫生及 藥種商 試驗-

충남 예산 경찰서에서는 去 15일 의생급 약종상 시험을 거행하였다고.

57. 조선일보 1926년 6월 1일

-禮山에 喜雨-

충남 예산지방에는 春旱이 심하여 벌써부터 물싸움(引水戰)이 이곳저곳에서 일
어나며 한참 소동이 되더니 지난 27일 이른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8
일 오전까지 계속하였음으로 일반은 대단히 기뻐하는 중이라더라.

58. 조선일보 1926년 6월 1일

-吳醫師가 준 '눈'-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海東醫院은 의사 吳道泳씨 경영으로 개업한지

불과 1개월의 신설의원으로 씨의 친절함은 일반의 칭송이 藉藉한 동시 환자가 매일 답지하여 人山人海를 이루게 되며 겸하여 치료를 받은 환자라도 直效를 보인다 하며 일반 극빈자에게는 무료 진료한다는데 其 일례를 擧하면 아산군 도고면 柿田里 朴孝淳(72)은 5년전에 右眼이 廢盲되어 視物치 못하여 오던 바 가세가 빈한하여 일본의 醫代를 ○出할 도리가 無하여 于今 5년간이나 치료치 못하였던 바 일전 동의원에서 무료수술을 受하여 완치된 바 전기 환자 박영순은 사방에 다니며 오의사가 주신 '눈(目)'이라고 자랑한다고.

59. 동아일보 1926년 7월 23일

-禮山에도 大洪水-

21일 밤 충청남도 예산군에도 큰 홍수가 있어서 조난자가 다수 하였는데 그 중에 일곱 명만 구조하였고 그 외는 목하 생사가 불명하며 京南線도 불통되는 중이다.

60. 조선일보 1926년 7월 31일

-天慘地愁, 目不忍見, 禮山一帶 水亂狀況-

屢報-충남 예산일대의 대홍수상황은 대개 기보와 같거니와 그후 조사한 바에 의하면 新陽面에 死者 17인, 重傷者 15인, 光時面에 死者 8인, 重傷者 3인, 大興面에 死者 1인, 淸可面에 重傷者 1인, 新陽面에 유실 가옥이 26호, 全壞 35호, 半壞 45호, 상상침수 123호, 廣時面에 유실가옥 10호, 전피 6호, 반피 8호, 상상침수 18호, 상하침수 5호, 대흥면에 유실가옥 2호, 전피 2호, 반피 3호, 상상침수 17호, 상하침수 8호, 應峰面 유실가옥 2호, 挿橋面에 유실가옥 4호 전피 6호, 반피 5호등등이다.

농작물 손해면적 21만 9천 7백 60여평, 농작물 손해 금 16만 5천 9백 77원가량인 바 이제껏 1천 500명중에도 더욱 참담한 바는 廣時面 대리에서 부부지간과 그 자녀 4남매 6식구가 살던 터에 별안간 그 처와 2남과 장녀, 2녀 4사람을 누른 물길에 빠앗긴 김○○와 동리에서 부부와 이녀 네사람이 물길을 따라 자취를 멀리 감춘 김○○의 남은 가족의 애통하는 형상은 초목도 느끼어 살던 집과 연도의 양식이며 애지중지하던 가족까지 꿈길같이 잃어버리고 장래 어찌할 도리가 없어 같이 못 죽는 것을 한탄하며 실성통곡하는 신양면 如來味里, 車洞里, 下泉里일대 천여명의 정상은 참아 볼 수 없더라.

61. 동아일보 1926년 7월 31일

-流壞 150戶, 死傷 46名-

既報=忠南 禮山 홍수피해는 다음과 같다.

- ▲死亡者 : 26명
- ▲重傷者 : 19명
- ▲流失家屋 : 44호
- ▲全潰 : 100호
- ▲半潰 : 150호
- ▲浸水 : 352호
- ▲農作物 被害面積 : 2,197町
- ▲被害額 : 16만 5천 9백 77원

62. 매일신보 1927년 1월 17일

-禮山郡 新陽面所 新築-

충남 예산군 신양면 사무소는 以來 구식가옥으로 歲久年深하여 東顏西廢할 뿐 아니라 작년 대홍수에 침수되어 一時 ○○으로 지내던 바 3천여원의 거액을 投하여 昨 10월경부터 신축 중이던 바 近日 竣工되어 불일간 신축가옥으로 이전한다 하며 도 당국으로부터 위치 변경인가까지 되었다더라.

63. 매일신보 1927년 3월 9일

-禮山 前年中 生産死亡結婚及 離婚數-

충남 예산군의 客年 1년 중 生産及 死亡과 結婚及 離婚數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출생 수는 男이 1,744인, 女가 1,484인 계 3,228인으로 예산군내에 現住하는 朝鮮人及 內地人 총인구 88,827명에 비하면 약 5분 가량이나 출생하였다 하며 사망자수는 방금 조사중임으로 상세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총 12면 중 우선 5개 면을 조사한 것만으로는 578명인바 그 중에는 정신계 병자 170명이 제일 다수를 점하였다 하며 결혼 수는 자 15세미만으로 60세까지 1,040건이며 이혼건수는 9건에 달한다는 바 대정 14년도에 비교하면 다소간 감소된 모양이라더라.

64. 조선일보 1927년 3월 28일

-忠南公農校-

충남공농교에서는 去25日 同校 제 15회 卒業式을 舉行하였는데 卒業生數는 男子 119명과 女子 52명이라고.

65. 동아일보 1927년 5월 2일

-新岩學校設立, 建築起工準備-

충남 예산군 新岩面에는 普通學校가 無함으로 대정 10년도에 同面長 辛益教씨가 발기하여 8천여원의 기부금을 모집하였던 바 當年에 集金을 完濟치 못하였고 其後任 面長 徐圭錫씨는 무책임한 처사를 하였음으로 오히려 방해가 되었던 바 現任面長 魚在兼씨가 피임되어 이래 노력한 결과 5천1백5십 원의 예산으로 爲先 2 교실을 건축하기로 하고 동면 宗敬里 後園에 基地를 정하여 건축청부를 시켰던 바 지난 달 28일에 地鎮祭를 舉行하였으며 同面長은 同校를 公立普通學校로 認可되도록 極力 運動중이더라.

66. 매일신보 1927년 5월 5일

-新禮院에 學校新設-

충남 예산군 예산면 신례원리는 戶數가 150여 호에 달하는 일대 부락으로 京南線開通이후 停車場까지 設立되어 장래에 頗히 유망한 지방이나 學校距離가 소원하여 兒童教育上 막대한 불편을 줄 뿐아니라 無産者兒童으로서는 전혀 教育을 받을 수가 없음으로 當地人士들은 此를 매우 遺憾으로 생각하던 중 昨秋 10월경부터 當地 小學校長 宮原英夫씨의 新禮院 有志 申鉉奎, 金○濟, 孔順基, 朴○根, 朴成用

5씨의 협력으로 附近 各里有志에게 戶別訪問을 하여가며 막대한 義捐金을 모집하여 無産子弟의 教育機關으로 講習所를 설립하고 男女 生徒 합 60여명을 募集하여 以來 教授중인 바 어린이들의 學業은 日進日就하여 不〇 幾個月간에 普校 2년 정도나 上에 달한다 하며 同面 〇良里 富豪 朴應五씨의 무한한 열성으로 畝선 自進 寄附하여 막대한 금액을 投하여 朝鮮式 家屋으로 校舍 12칸을 建築하여 同講習所에 寄附한다 하며 同里 內地人 田中常〇씨도 數地 800여평을 2개년간 無料로 同講習所 基地로 提供하기로 되어 오는 8일경에는 新築校舍의 落成式을 성대히 舉行하리라 하며 장래에는 私立學校로 昇格되리라는 바 일반인사는 朴應五씨의 自進寄附와 其外 일반 제씨의 열성 노력에 대하여 칭찬하여 마지않는다 하며 同講習所는 前途가 頗히 洋洋하여 다수한 英傑俊才를 양성하리라더라.

67. 동아일보 1927년 5월 16일

-禮山 電氣 架設? 繁榮會에서 努力-

충남 예산군에서 다년 懸案 중이던 전기회사 창설에 대하여 예산 번영회에서 활동하던 바 예산 驛前에 있는 忠南 商業株式會社에서 營業을 變更할 목적으로 禮山 繁榮會에서 同社와 교섭한 결과 電氣 經營을 協議하고 지난 12일 오후 3시에 예산번영회에서는 役員會를 開하고 朴始陽氏 司會下에 전기회사 발기에 대하여 討議하였는데 1자본 금 5만원 (2500주)으로 忠南 商業株式會社에서 1500주를 引受기로 하였다더라.

68. 매일신보 1927년 5월 16일

-忠南 禮山에 電氣會社 創立-

충남 예산군 예산 읍내 內鮮及 外國人의 유지를 망라하여 조직한 禮山繁榮會에서는 창설한지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禮山의 發展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오랫동안 두고 宿題이던 禮山電氣會社設置問題를 討議코자 지난 12일 오후 5시 반부터 禮山 面事務所에서 繁榮會 任員會를 開催하고 同面長 朴始陽씨 사회 하에 忠南西部地方의 일대 도시로 아직까지 電氣라는 文明의 利器를 사용치 못하게 된 것은 우리 예산지방의 발전을 위하여 무엇보다 일대 유감인 바 예산 역전에 本店을 두고 米穀及 貿易業을 經營하는 忠南商業株式會社가 今般 目的을 變更함을 기회로 하여 資本金 5만원으로 禮山電氣會社를 設置하자는 제의가 있자 出席會員의 滿場一致로 總株數 2,500株, 1주에 대하여 20원씩 일시 불입으로 商業會社측 1,500株, 3만원과 一般 市民측 1,000株, 2만원을 각기 부담하기로 가결한 후 發起人으로 商業會社측 4인과 일반 시민측으로 좌기 6인을 선출하고 오후 7시경에 散會하였으며 發起人측에서는 불일간 發起人會를 開하고 電氣會社設立에 대한 제반 준비를 行하리라더라.

◇ 發起人 氏名

成樂〇, 金星權, 朴始陽, 伊〇吉〇, 商業會社側 4人 未定

69. 동아일보 1927년 8월 4일

-禮山基督青年會創立-

충남 예산 耶蘇教 禮拜堂내에서 예산 기독교청년회를 지난 31일에 창립하고 규칙

통과와 임원선거가 있었던 바 同會에서는 同教會와 일반사회를 위하여 다대한 활동을 하리라더라.

70. 매일신보 1928년 3월 11일

-禮山邑에 幼稚園設置-

충남 예산 읍내는 호수가 천여 호에 달하는 一便 逐年發展에 발전을 더하여 시가지의 모든 시설이 나날이 확장됨을 따라 다년간 예산지방의 중대문제만큼 2중3중으로 분류를 거듭하던 電燈問題도 해결되는 동시에 오는 4월말 경부터 실현케 되어 일층 異彩를 내이게 된 湖西地方의 일대도시이나 兒童保育機關인 幼稚園이 없음으로 일반 유지간에는 다년 이를 設立코자 활동하였으나 財源과 기타 여러 가지 關係로 實現치 못하고 있던 중 今般當地 聖公會로부터 幼稚園設立에 대하여 教室建築費로 일금 천원과 幼稚園存立期間중에는 何時까지든지 每朔 35원씩 지출 하겠다는 自進寄附가 있음으로 이를 機會삼아 이 때에 기어이 설립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겠다는 有志의 熱誠下에 지난 4일 오후 5시부터 이를 協議코자 市民有志會를 열고 各種 進行方針에 대하여 원만히 토의한 결과 禮山幼稚園 設立期成會를 組織하기로 滿場一致로 가결되어 즉석에서 期成會를 조직하고 회장 鄭聖烈, 부회장 姜寅焚, 총무 朴聖鎭, 간사 姜致遠씨의 2인, 委員으로 金○○씨의 15인을 선정한 후 폐회하였으며 제2차로 지난 7일 오후 7시부터 읍내 金顯相씨宅에서 期成會協議會를 개최한 결과 30여인의 출석으로 順序에 따라 會長 鄭聖烈씨 開會辭가 있는 후 간사 姜致遠씨 대리로 委員 金顯相씨, 군당국과 경찰당국의 교섭전말에 대한 상세한 경과보고가 있는 후 위원증진에 대하여 田慶○씨의 5인을 再選하고 義捐金 募集方針討議件에 들어가자 各委員의 異口同聲으로 募集範圍는 2천원으로 한정하여 聖公會 寄附金 천원과 합 3천원을 적립하고 募集區域은 禮山郡一圓으로 하되 委員 4.5명씩 各隊로 나누어 戶別訪問을 하기로 決定한 후 즉석에서 각 위원으로 爭先 義捐이 시작되자 田慶○씨의 基地 50평(時價 약 50圓)을 비롯하여 380여원의 거액을 모집한 후 12시경에 성황리에 散會하였는 바 금후로부터 적극적 방침과 필사적 활동으로 기필코 실현에 노력한다더라.

71. 동아일보 1928년 3월 15일

-禮山幼稚園- 兩波가 合同促成-

忠南 禮山邑은 8백 여의 戶數를 有하고 有數의 實業財產家도 多한 바 幼稚園의 設立이 無함을 크게 遺憾이라하여 當地 有志 李鐘大, 李鐘惠, 金星權, 成樂憲, 吳道泳, 黃致晚 諸氏와 禮山幼稚園期成에 대한 因緣이 깊고 關係가 오랜 禮山監理教會의 代表로 同教 基督青年會 林鐘淑, 金振東 兩氏와의 發起로 禮山幼稚園 設立期成會를 發起하고 禮山 有志들로 有志會를 組織하여 同會의 經營으로 監理教禮拜堂을 團舍로 使用키로 하고 進行하는 중 他一邊으로는 當地聖公會 傳道師 金永赫氏로부터 同教會 主管의 幼稚園을 設立하겠다하며 團舍建築費로 천원 每月經費로 35원 式的 補助를 同教會 本部로부터 求得한다하여 鄭聖烈, 金顯相, 安拓遠 3氏 외 10餘人の 發起同意로 역시 禮山 幼稚園 設立을 期成함으로 兩波의 活動이 各界하고 勿論이 分분하던 중 지난 8일 오후 8시에 兩波 代表가 當地 迎春館에 會晤하여 妥協한 結

果 聖公會 發起側은 同教會의 주관에서 벗어나서 동 교회의 經費補助를 拒絕하기로 하고 李鐘大의 禮山有志側 發起와 合同하여 幼稚園期成을 促進함으로 一般有志의 義捐金이 達至한다더라.

72. 매일신보 1928년 3월 26일

-忠南農業學校 合格者發表, 55名-

예산에 있는 忠南道公立農業學校 今回 入學試驗合格者는 다음과 같다(이하 생략 -편집자).

73. 동아일보 1928년 5월 1일

-良幕 禮拜堂 新築-

충남 예산군 吾可面 良幕里에서는 尹熙斗, 沈台○ 양씨의 발기로 美監理教會 에 배당을 신축하기로 하여 去月 28日에 上梁式을 거행하였다.

74. 동아일보 1928년 9월 29일

-禮山名唱會, 幼稚園위해-

충남 예산시 田慶○씨는 來 30일(음 8월 17일)부터 向 3일간에 京城 李東伯君 을 청하여 名唱會를 열고 當地 기생들도 연주케 한다는 바 同名唱會의 수입 이익 금은 當地 新明幼稚園에 寄附한다더라.

75. 동아일보 1929년 1월 13일

-禮山郡-

〈教育機關〉

▲禮山新明幼稚園, 設立 昭和 3年 6月 10日, 設立者 金永赫, 設立時生徒 21, 現在生徒 42, 教員 2 園長 金鎮焚

▲吾可自救青年會附屬學院, 設立 昭和 2年 11月 1日, 設立者 金炳憲, 設立時生徒 40, 現在生徒 23, 教員2, 院長 金炳憲

▲啓蒙學院, 設立 大正 12年 4月 1日, 設立者 趙○熙, 設立時生徒 27, 現在生徒 41, 教員 2, 院長 趙昺熙

▲永城講習所, 設立 昭和 2年, 設立者 朴興元, 設立時生徒 4, 現在生徒 24, 教員 2, 所長 朴興元

▲明新學院, 設立 昭和 3年 4月 1日, 設立者 朴成龍, 設立時生徒 15, 現在生徒 72, 教員 3, 院長 崔寬一

▲培材講習所, 設立 昭和 2年 4月 1日, 設立者 李建焚, 設立時生徒 35, 現在生徒 51, 教員 2, 所長 李殷述

▲山城里勞動夜學會, 設立 昭和 3年 1月 9日, 設立者 禮山基督青年會, 設立時生徒 54, 現在生徒 67, 教員 12, 會長 高永琦

▲衡平講習所, 設立 昭和 3年 4月 15日, 設立者 金成俊, 設立時生徒 23, 現在生徒 24, 教員 1, 所長 申喜安

- ▲吾可公立普通學校，設立 大正 11年 4月 20日，設立時生徒 160，現在生徒 302，教員 5，校長 中島金作
- ▲新陽公立普通學校，設立 大正 12年 3月 20日，設立時生徒 134，現在生徒 196，教員 4，校長 寺島〇二
- ▲高德公立普通學校，設立 大正 10年 2月 24日，設立時生徒 72，現在生徒 318，教員 7，校長 柳井秀一
- ▲光時公立普通學校，設立 大正 13年 4月 1日，設立時生徒 141，現在生徒 236，教員 4，校長 中森富士松
- ▲新岩公立普通學校，設立 昭和 3年 4月 1日，設立時生徒 102，現在生徒 102，教員 2，校長 長谷部勝
- ▲興東講習所，設立 昭和 3年 4月 1日，設立者 朴基興，設立時生徒 42，現在生徒 32，教員 2，所長 朴基興
- ▲大興私設學術講習會，設立 昭和 3年 4月 1日，設立時生徒 40，現在生徒 40，教員 1，會長 朴慶炫
- ▲大述講習所，設立 昭和 3年 4月 1日，設立者 朴仲連，設立時生徒 35，現在生徒 38，教員 2，所長 金庭善

〈經濟團體〉

- ▲忠南電氣會社，設立 昭和 3年 3月 5日，創立時資金 20萬圓，創立時株主 120，現在資金 20萬圓，社長 新井榮吉
- ▲產米改良組合，設立 大正 15년 9月 15日，創立時資金 6000圓，創立時株主 27，現在資金 9000圓，社長 鄭鳳和
- ▲麻田里錦作指定里洞契，設立 大正 13年 10月 1日，創立時資金 130圓，創立時株主 85，現在資金 410圓，契長 朴憲容
- ▲大興匿名組合，設立 大正 15年 6月 1日，創立時資金 14,550圓，創立時組合員 100，現在資金 16,000圓，組合長 尹〇求
- ▲忠南製絲會社，設立 大正 15年 3月 23日，創立時資金 50萬圓，創立時株主 485，現在資金 50萬圓，社長 成樂奎
- ▲湖西銀行禮山支店，設立 昭和 2年 10月 1日，現在資金(天安本店 參照) 支店長 成元慶
- ▲衡平親睦契，設立 大正 12年 1月 3日，創立時資金 25圓，創立時株主 25，現在資金 40圓，契長 崔時應

〈社會團體〉

- ▲金烏青年會，創立 昭和 3년 3月 31日，創立時會員 35，現在會員 54，會長 金石培
- ▲衡平社禮山支部，創立 大正 12年 6月 21日，創立時會員 34，現在會員 34，支部長 申喜安
- ▲〇豐青年會，創立 大正 15年 12月 1日，創立時會員 40，現在會員 40，會長 李庭謨
- ▲大川修養青年會，創立 昭和 3年 12月 11日，創立時會員 27，現在會員 27，會長 裴亨洙
- ▲講習所聯合教育研究會，創立 昭和 2年 10月 1日，創立時會員 8，現在會員 17，會長 李正夏
- ▲〇峯學友親睦會，創立 大正 9年 10月 1日，創立時會員 51，現在會員 82，會長 趙昺始
- ▲自救青年會，創立 昭和 2年 11 1日，創立時會員 30 現在會員 63，會長 金炳憲
- ▲新幹會禮山支部，創立 昭和 2年 11月 14日，創立時會員 69，現在會員 77，會長 金振東

76. 매일신보 1930년 3월 8일

-禮山-

禮山農業學校에서는 오는 12일, 13일 양일간에 제1학년생이 입학시험을 行하는데 모집정원은 50명이오, 입학지원자는 243명으로 작년도의 입학지원자에 비하면 9명이 감소되었으나 금년도의 지원자들은 보통학교의 성적순으로 보면 10위 이내의 성적인 자가 약 9할이 된다.

77. 매일신보 1930년 3월 8일

-禮山初等校 卒業式日順-

예산군내 초등학교 졸업식은 左記와 같이 舉行하리라 한다.

- △ 禮山公立尋常高等小學校 3월 23일
- △ 禮山公立普通學校 3월 22일
- △ 大興公立普通學校 3월 21일
- △ 德山公立普通學校 3월 23일
- △ 古德公立普通學校 3월 24일
- △ 吾可公立普通學校 3월 24일
- △ 新陽公立普通學校 3월 22일
- △ 新岩公立普通學校 3월 23일
- △ 光時公立普通學校 3월 21일

78. 매일신보 1930년 3월 9일

-忠南農業學校 第1回 卒業式-

충청남도 공립농업학교에서는 5년간의 卒業生으로는 제1회 卒業式을 오는 9일 오전 10시에 舉行하는 바 34명의 졸업생에 4명은 京城師範學校 演○科에, 1명은 水原高等農林學校에 입학을 희망하고 其餘 29명은 각 방면에 취직을 희망하는 바 各官公署와 會計에 就職 個所가 內定되었다.

79. 매일신보 1930년 3월 29일

-禮山-

예산에 있는 충남공립농업학교에서는 매년 3월 초순에는 입학시험을 同校에서 施行하는 바 금년에도 예년과 같이 3월 12일부터 3일간 동교에서 입학시험을 실시하였는데 총지원자 무자격자 1인을 합하여 243인데 합격자는 55명이다(씨명은 略함).

80. 매일신보 1930년 5월 5일

-禮山 諺文講習會-

예산군 12면 175개 리에서 소화 4년도에 개최된 206개소의 언문강습회의 강사가 249인 인바 소화 2년도부터 諺文教授의 계속으로 열심 노력하여 성적이 우수한 강사 15인에게 충청남도 언문보급회에서 題○ 1조를 기념품으로 증명하였는데 씨명은 여좌하다(자세한 씨명은 생략-편집자).

81. 매일신보 1930년 5월 16일

-〈各地片信〉, 禮山-

예산군 진흥회 연합총회는 기보한 바와 같이 금월 17일에 개최하기로 예정하였던 바
松站○驅除에-로 인하여 부득이 연기되어 오는 24일에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는데 당일은
1면 1개소의 우량 진흥회의 성적보고, 우량진흥회 동 회원의 표창, 소화 5년도의
실행덕목 협의결정, 지사, 군수의 ○사, 내빈축사, 기타 대화로 성황을 이루었다.

82. 매일신보 1930년 6월 10일

-〈各地片信〉, 禮山-

예산군내의 공립학교는 농업학교가 1개소, 소학교가 2개소, 보통학교가 9개소인
바 4월 30일 현재의 학급수가 58학급이요, 생도 아동수가 남자 2,277명, 여자
493명, 계 2,770명이요, 직원수가 남자 64명, 여자 16명, 계 70명이라 한다.

83. 동아일보 1930년 11월 6일

-忠南農校記念-

충남 예산에 있는 충남 공립 농업학교에서는 지난 2일 오전 11시 동교 가설식
장에서 校友會長鮫島一二씨 사회 하에 20주년 기념식을 시작하였는데 비가 여지
없이 내려 내빈 축사는 하지 못하고 식을 마치었다 한다.

84. 매일신보 1930년 11월 6일

-忠南 農業學校 卅週年 祝賀式舉行-

충청남도 공립농업학교 창립 20주년 축하식을 지난 2일 오전 10시에 동교정 大式場에
서 劉忠南知事, 朱忠南參典官, 高武忠南內務部長, 下○忠南財務部長, ○廷忠南官房主事,
鄭禮山郡守, 李靑陽郡守, 기타 道內郡內 官公署長, 學校長 有志 學父兄, 卒業生 300여명
의 내빈 참석하에 ○島교장의 개회로 순서를 따라 장엄리에 식을 마치고 12개소의 露店
으로 設備完全한 大園遊會場에서 歡喜를 12분 盡하고 菊花會場, 生花會場, 同校 成績品
展覽會場, 初等學校成績品展覽會場, 中等學校成績品展覽會場, 農產物品評會場, 禮山郡教
育會品評會場 등의 8개소로 설비된 다수의 出品을 차례로 觀覽하고 餘興까지 있어 극히
盛況을 모하였는데 日氣는 乍雨乍陰하여 清明치 못하였으나 수천 명의 觀覽者가 있었다.

85. 매일신보 1930년 12월 24일

-專賣支局 禮山出張所-

全州專賣局 禮山出張所는 禮山郡廳 所在地인 禮山里에 있다가 禮山驛 所在地인
舟橋里로 移轉하여 廳舍를 新築하였는 바 竣工되어 25일 정오에 新築廳舍에서 落
成式을 舉行하기로 된 바 同所에서는 落成式準備에 粉忙 중이라 한다.

86. 조선일보 1931년 2월 5일

-釀造會社創立, 禮山에서 資金 5만 5천원으로-

충남 예산에서는 지난 1월 29일 오후 한 시부터 당지 공회당에서 예산 양조주식회사 창립대회를 安錫遠 사회로 개최하여 원만한 진행하였다는데 자본금의 총액은 5만 5천 원이요 선거된 역원은 아래와 같다 한다(활자가 읽을 수 없음-편집자).

87. 동아일보 1931년 2월 21일

-忠南 公立農業學校-

- ▲募集人員 약 50명
- ▲出願期日 2월 28일까지
- ▲試驗期日 3월 11, 2, 3일
- ▲試驗場所 충남 예산군 예산면 同校

88. 매일신보 1931년 3월 10일

-忠南道立農校卒業式-

충남 공립농업학교에서는 지난 8일 오전 10시에 제17회 졸업증서 수여식을 동교 대강당에서 충남 참여관 朱榮煥씨의 來賓 學父兄의 참석 하에 敬禮, 唱歌, 卒業證書受與, 賞狀受與, 學校長式辭, 道知事告辭(대리 참여관), 來賓祝辭, 在校生總代 祝辭, 卒業總代 答辭, 敬禮의 순서로 정숙리에 거행하였다.

89. 동아일보 1931년 3월 14일

-忠南農校-

충남 예산읍에 있는 충남 공립농업학교 제 17회 졸업식은 지난 8일 오전 10시부터 동교 강당에서 거행한 바 우등생과 지원별은 다음과 같다.

- ▲優等生 : 黃卜成, 李弼圭, 申鳳均, 具然夏, 李貞植
- ▲志願別 : 水原高農 2, 京城 演習科 1, 平師 演習科 2, 邱師 演習科 1, 就職 支援者 33

90. 매일신보 1931년 3월 15일

-忠南農業卒業生은 39名-

충청남도 공립농업학교(소재지 예산) 제17회 졸업증서 수여식은 지난 8일에 거행하였는데 졸업생의 씨명은 左와 如하다(五十音順)(이하 생략-편집자)

91. 동아일보 1931년 3월 27일

-忠南農業學校 合格者 發表-

(지원자 231명 중 56명 합격, 합격자 명단은 생략-편집자 주)

92. 매일신보 1931년 11월 15일

-禮山農倉 落成式-

11월 11일 예산농업창고 낙성식을 거행한 바 지사대리 下○재무부장의 예산, 청양, 보령, 아산 각 군수, 岡本경남철도 운수과장, 농학교장, 기타 지방관민 다

수와 道農會 회장대리 列席下 倉庫會長の 開會, 神社神宮으로서 修○祝辭, 西村技士의 工事報告, 道農會長の 式辭, 지사대리의 告辭, 내빈 다수의 축사로서 閉式하여 계속하여 성대히 祝宴을 了하고 오후 3시에 解산, 餘興으로서 근래 회유의 盛況을 囑하였다 한다. 원래 농업창고는 농업자가 농산물을 자금화시키는 가장 유리하고 또 편리한 보호기관이 됨으로 소화 4년에 朝鮮總督부 並道當局의 旨를 承하여 강경으로부터 창시하여 道내 主要 米穀積산지는 水차 機 供給을 기획하여 금반 예산도 실현된 바 忠南도 북부지방의 米穀의 생산積산의 중심지로서 設치의 急務를 認하여 去 10월 20일 무사 竣工하여 去 11월 5일부터 入庫式이 有하고 즉시 事務를 개시한 바 예산창고는 2동 200평이다(이하 생략-편집자)

93. 매일신보 1931년 11월 27일

-禮山, 洪城 廣川에 電燈架設準備-

天安電氣會社에서는 禮山, 洪城, 廣川지방에 送電할 計劃으로 去月부터 實測中이던 바 測量이 終了되어 目下 電柱를 建立中이던 바 年內에 送電이 될 豫定이다.

94. 매일신보 1932년 1월 16일

-禮山 吾可面所 落成-

예산군 오가면사무소는 3450원의 豫定 下에 건축 竣工하였다 합은 기보한 바어니와 지난 12월말에 전부 竣工되어 1월 4일에 新축 사무소로 이전하였다.

95. 동아일보 1932년 2월 19일

-忠南公立農業學校-

▲募集人員 : 50名

▲出期限 : 2月 29日

▲試驗期日 : 3月 11, 12, 13日

▲試驗場所 : 忠南 禮山邑 同校

96. 매일신보 1932년 3월 8일

-禮山郡 人口統計-

禮山郡內 各面 人口는 昭和 6년 12월말일 현재로 10만 3백53명으로 昭和 5년 12월 말일 현재 人口數 9만 9천 454명에 比하여 899명의 증가되었는데 各 面 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예산면 14,246人

대술면 7,415人

신양면 9,002人

광시면 9,224人

대흥면 5,666人

응봉면 5,449人

삼교면 11,519人

덕산면 8,040人
봉산면 6,901人
고덕면 8,639人
신암면 6,314人
오가면 7,938人

97. 동아일보 1932년 3월 10일

-優等生 5名, 忠南公立農校-

충남 예산읍 忠南公立農業學校의 금년 졸업생은 40명으로서 그 중의 우등생이 5명 이요, 상급학교 지원자가 12명이라는데 지원별과 우등생의 씨명은 다음과 같다.

(優等生) 李思容, 朴秉元, 李雄世, 孟一貫, 李敏壽

(志願別) 法專 2, 世專 1, 大○ 1, 醫專 1, 京師 3, 平師 2, 高農 2, 自營 1, 就職希望 23

98. 동아일보 1932년 3월 20일

-忠南公立農業學校 合格者-

盧石鎬외 47名, 日本人 5名(全 人員이 있으나 생략함-편집자)

99. 매일신보 1932년 3월 23일

-禮山郡內 初等校卒業式-

禮山郡內 初等教育의 各學校 卒業式은 左記日程에 의하여 舉行한다.

私立新明幼稚園 3월 20일

禮山公立尋常高等小學校 3월 23일

新禮院公立小學校 3월 25일

禮山公立普通學校 3월 23일

大述公立普通學校 3월 24일

新陽公立普通學校 3월 25일

光時公立普通學校 3월 24일

大興公立普通學校 3월 23일

挿橋公立普通學校 3월 24일

德山公立普通學校 3월 24일

古德公立普通學校 3월 23일

新岩公立普通學校 3월 24일

吾可公立普通學校 3월 23일

100. 조선일보 1932년 5월 1일

-상해축하식장에서 朝鮮靑年이 爆彈投擲, 重光公使, 白川大將等 中傷, 犯人은 禮山의 尹奉吉-

작 29일 천장절 당일에 상해에서는 증광공사와 지난번 상해사변으로 출병하였다가 남아있는 군부의 장성들이 신공원에서 오전 11시 40분 경에 천장절 축하식을

거행하고 있을 지음에 돌연히 조선인 청년이 手榴彈을 式臺에 던져 폭발되어 중광공사와 백천사령관 이하 野村司令官 植田團長, 村井總領事등의 중요인물 다수가 중상을 당하고 그 외에 내빈 중에도 십수명의 부상자를 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상세한 것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범인의 한사람인 尹奉吉(25)은 충남 예산출생의 篤農家의 아들로써 얼마전 상해서 예산에 왔다가 다시 상해로 간 사람이라 한다.

101. 조선일보 1932년 5월 2일(소화 7년)

-上海爆彈事件 容疑로 ○○要人 多數 被逮, 露米中國人等을 습하여, 40여명 檢舉取調-

모처에 도착한 정보에 의하면 상해에서 조선 청년의 폭발탄 사건으로 상해 일본 총영사관에서는 대활동을 개시하여 佛租界 경찰에 의뢰하여 29일 밤부터 시작하여 조선○○운동 주요인을 다수와 폭탄사건의 용의자 등 삼십여 명을 검거하였다. 그리고 일병헌병대에서는 러시아, 중국, 미국인 남녀 십수 명을 용의자로 체포하고 취조중인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체포된 사람은 도합 사십여명의 다수에 달한다 한다.

102. 조선일보 1932년 5월 3일

-上海爆彈犯人 家庭-

폭발탄 사건의 범인 윤봉길(22)의 출생지가 예산이라 함은 본지에 기보한 바인데 상세한 것은 아직 발표할 자유가 없으나 그의 집은 예산군 ○○면 ○○리로 기자가 왕방하였을 때에 범인의 부친 尹某(42)와 모친 모(42) 부부는 어찌된 영문인지들 몰라하는 태도였다. 자세한 것은 추후로 미룬다(사진은 범인의 처외 2아들).

103. 조선일보 1932년 5월 7일

-○○團本部 襲擊 安昌浩도 被檢-

[上海 4月 30日 發電] 上海佛租界工部局은 일본 총영사관의 요구에의 □□4월 29일 밤중으로부터 30일 새벽까지 대활동을 개시하여 조선○○운동의 총본부 기타 여러 곳을 엄습하여 중요 간부 십수명을 검거하여 일본 관헌에게 인도하였으며 또 공동조계에서도 대활동을 하여 합계 24~5명의 조선인과 중국인을 검거하여 목하 일본헌병대에서 엄중한 취조를 하는 중인데 그 중에 조선○○운동의 수령 안창호도 체포되었다 한다.

-上海爆彈犯 尹은 抗日同盟의 一員, 朝鮮○○運動 直接派-

[上海發電] 지난 4월 29일 상해폭탄사건의 범인 윤봉길(28)에 관한 기사는 그간 당국에서 일부 금지되었던 중 6일 오후 3시에 일부 해금되었다. 윤봉길은 충청남도 예산군 시량리 131번지에 본적을 두고 있는터이라 함은 별항과 같거니와 그는 작년 겨울에 상해에 이르러 조선○○운동에 참가하여 중한민족동맹의 일원으로 동시에 중만재호 항일동맹중에는 모모의 이름으로 참가하였는데 맹약 13개조가 있다. 그리고 25일 東京에 정국신사대제에 자객으로 모 중대한 음모를 수행하

려다가 실패하였는데 윤봉길은 그 중의 한사람이라 한다. ◇사진은 (上) 윤봉길, (下) 안창호

-尹奉吉來歷, 上海에선 職工生活-

[예산지국 조사] 지난 4월 29일 상해 천장절 축하식장에 수류탄을 던져 重光公使의 중요 인물들을 중상시켜 세상을 놀라게 한 폭탄범인 윤봉길에 대하여는 당국으로부터 일제 계재를 금지하였는 바 금일 그 일부가 해금되었다. 사건의 주인공 윤봉길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랑리 109번지 尹瑛(42)의 장자로 본명은 尹禹儀라는데 그는 11세에 목면공립보통학교에 2년간 통학후 그 다음부터는 한문을 3년간 수학하였다 한다. 그리고는 月進會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또 야학에서 동리 문명인에게 글도 가르쳤다 한다. 그러다가 소화 4년 음 2월 7일에 신의주로 갔다가 靑島로 다시 가서 양복세탁소에서 1년 동안 있다가 또다시 상해로 가서 식품공작소에서 1개월 45원의 봉급을 받고 있었다 한다.

104. 조선일보 1932년 5월 8일(소화 7년)

-○○政府 李春山 命令, 露國人도 間接關係, 有力代表와 赤色테러 計劃, 上海 爆彈事件續開-

범인 윤봉길(25)의 자백에 의하면 직접 동행을 명령한 것은 조선 ○○정부의 李春山인 것이 판명되어 당국은 전기 이춘산을 체포코자 노력 중인데 이춘산은 "싸베-트도서아"의 명령에 의하여 "하르빈"에서 赤化運動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 최근 당지에 들어오면서 ○○전부일파의 조선인을 조종하여 당지에 파견되어 있는 "싸베트"의 모유력대표자(로서아인)와 연락하여 적색"테러"의 계획을 진행시키어 윤봉길로 하여금 금번의 동행을 하게 한 것으로 사건의 배후에는 赤露의 손이 간접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다.

육군 헌병대와 총영사관 경찰서에서는 29일 밤 삼경까지 체포된 범인에 대하여 취조한 결과 범인의 계통에 관하여 어떤 확신을 얻은 것 같은데 30일 오전 3시 수사본부를 佛租界의 重光公使관저에 옮기고 園田警部를 지휘자로 하여 서원과 헌병대원을 총동원하는 동시에 불조계 공보국 경찰서원 약 50명의 용원을 얻어 불조계에 숨어있는 조선○○당 조선공산당 기타 조선사람의 숨은 집을 엄밀히 수사하여 용의자로서 조선인 12명을 체포하여 불조계 경찰이 인도한 후 30일 오후 3시 杉村警部, 園田警部, 奥村警部는 불조계 경찰에 가서 용의자를 인수하여 총영사관 경찰에 구류시켰다. 그러나 金九일파의 거두들은 中國街 南市에 도망한 듯하여 각 방면과 협력하여 수사중이다.

범인 윤봉길은 불조계였던 중국인세탁소의 외교원으로 있었는데 그 사이에 공동조계에 있는 조선○○당원과 왕래하는 가운데 동파에 들어간 모양 같다. 윤은 간부급은 물론 아니고 무명의 당원으로 간부의 앞잡이가 되어 불온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천장절 축하식에 일본 군부와 외교관 수뇌부가 참집하는 기회를 엿보고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

상해사건의 주인공 윤봉길은 현장에서 체포된 것은 기보한 바어니와 그이 배후에는 조선공산당의 마수가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로 범인 윤을 취조한 결과 중국 측의 반일회원 또는 十九路軍도 배후에 있는 듯하여 당국에서는 긴장하

여 취조중이다.

조선○○당의 정부를 조직한 金九, 趙素昂등 일파는 미리부터 反日會及抗日救國會(反日會 後身)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각급 자금의 공급을 받는 외에 모 사건에 사용한 폭탄도 항일구국회를 거쳐서 중국 측에서 얻은 것으로 금번 폭탄사건에 사용한 水筒과 변도갑에 집어넣은 폭탄도 항일회를 통하여 중국 측 군부의 전문가에게 만들게 한 것이라 하여 지금 전문가에 의하여 분석조사중이다. ○○당 일파의 抗日會와의 제휴는 공연한 사실로 만주사건 발생이래 抗日救國會주최인 "배일대회"에서도 그들은 가끔 "○○동지"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일본을 타매한 사실이 있고 작년 12월 南市의 公共體育場에서 개최된 抗日救國市民大會(抗日救國會主催)에는 조소앙등이 연사로서 열변을 토하였다고 중국신문이 보도한 일이 있었다. 이와 같은 것으로 보아 금번의 폭탄사건의 배후에는 十九路軍과 同鄉인 廣東人에 의하여 牛耳를 삼고 있는 항일구국회의 손에 뻗쳐 있는 것은 덩지 못할 사실이라 한다. 그러나 수색상 곤란한 것은 중국 측과 연락을 위한 물적 증거를 잡지 못하여 일본 헌병대와 영사관 경찰에서는 가장 고심하고 있다 한다.

105. 매일신보 1932년 5월 9일(소화 7년)

-消組 禮山支部 發會式舉行-

예산군에서는 지난 6일 오전 10시부터 朝鮮消防協會 禮山支部 發會式을 예산농업학교 운동장에서 실시하였다(기타 내용은 생략)

106. 조선일보 1932년 5월 27일

-上海爆彈犯 尹奉吉 軍法會議遂開廷, 제1회 審問마치고 閉廷, 憲兵隊에서 開催-
지난 4월 29일 상해 新公園에서 거행된 천장질 축하회장에서 수류탄을 던지어 白川大將, 野村中將, 重光公使, 하단 및 단상의 제씨를 암살하려고 하던 조선인 尹奉吉에 대한 제 1회 군법회의는 25일 오후 花里, 赤木 양인 입회로 상해 헌병대에서 개최되어 동 오후 6시에 폐정하였는바 다음 군법회의는 미정이라한다.

107. 매일신보 1932년 10월 19일

-德山公普校, 20年 記念式-

예산군 덕산공립보통학교에서는 지난 15일에 20주년 기념식을 각 관공서 학교, 회사, 학부형, 졸업생 약 400여명의 참석 하에 川西校長의 開式辭를 비롯하여 唱歌, 詔書奉讀, 學校沿革大要說明, 學校長式辭, 郡守告辭, 來賓祝辭(古德公立普通學校長 木島, 瑞山郡泰安公立普通學校長 ○林榮人, 禮山郡 教化主事 李弘魯), 學父兄會長祝辭(李廷○), 同窓會長祝辭(金奭鍾), 閉式등의 순서로 성황리에 종료하고 기념사진 촬영 후에 宴會에 移하였는데 同日은 郡內初等學校 學藝品展覽會와 同校兒童 學藝會까지 있었다.

108. 동아일보 1932년 12월 20일

-上海爆彈犯 尹奉吉, 昨朝 金澤서 銃殺-

上海 派遣軍 軍法會議에서 사형의 선고를 받은 상해 폭파범 尹奉吉은 17일 저녁

에 대판 衛戍拘禁所에서 金滯으로 호송되어 19일 아침 7시 40분에 금택형무소에서 총살로써 형을 집행하였다.

109. 조선일보 1933년 1월 20일

-爆彈犯 尹奉吉 遺骸, 朝鮮으로 運搬? 警察當局은 嚴重監視-

상해폭탄범으로 死刑을 받은 윤봉길은 지난 12월 19일 일본 金澤에서 총살집행을 한 후 그곳 형무소 매장지에 매장한 것을 예산에 있는 그 가족들이 그 시체를 고토인 조선으로 운반할 계획중임을 안 충남 경찰부에서는 예산경찰서로 엄중 감시하도록 주의를 할 모양이라더라

110. 조선일보 1933년 2월 13일

-爆彈犯 尹奉吉 遺骸 下附 不能-

본직을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양리에 둔 상해폭탄범 윤봉길의 부친 尹璜은 거변에 자기 아들 윤봉길이가 육군 군법회의에서 사형, 집행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의 유골이나 불까하고 陸軍 金澤 衛戍 拘禁 所로 유골을 인도하여 달라고 금월 7일부로 신청을 하였던 바 금월 11일에 동 구금소로부터 육군 감옥령에 의하여 화장한 후 묘지에 매장한 후로는 유골을 하부치 못하는 규정이라 하는 통지를 하였다 한다.

111. 매일신보 1933년 8월 22일

-禮山郡 大川市는 感奚國의 古都-

禮山郡 古德面 大川市는 山川이 秀麗하고 沃野가 通○한 곳으로 傳說에 往古에는 一小國都라고 하던 바 同面長 成○老씨가 多年間 古蹟을 探查하는 一方 옛날 문헌을 參考한 결과 비로소 옛날 感奚國 城址이었던 것이 발견되었다. 感奚國은 紀元 2141년 馬韓 武庚王 元年 戊申에 建國하여 同 2835년(歷年 695년) 百濟 武寧王 元年 壬午에 廢國된 一小國이었다는 바 그 후 該址는 今勿縣이라하여 今通都督府를 두었다가 또 支得州, 德○縣, 運州에 여러 이름의 沿革이었던 바 朝鮮 太宗時 德山縣으로 附屬하였다가 大正 3년에 禮山郡으로 合併되어 古德面이 되었다. 大川里 後山에는 感奚國 古城址가 아직도 분명하다 하며 부근으로 峨○山, 財物峰, 明沙大川 九萬浦는 다 湖西에 著名한 곳이라 하며 市外防築洞에는 어느 때 所作인지 3층탑, 미륵불도 있다 한다.

112. 조선일보 1933년 10월 18일

-禮山의 名勝古蹟-

一山二水亭

新陽面 ○○鶴里 一小丘上에 在하여 丘의 兩便으로 流下하는 二川이 丘○을 洗하고 一川이 되었음으로 一山二水라 칭하는 바 丘上의 小亭에 金秋史의 一山二水亭의 扁額을 ○하였고 左右風景은 可賞할 만한 바가 있다.

龍宮舊跡

新岩面 龍宮里(面事務所로부터 約 1里)의 後○에 李朝 英宗大王의 2女 和順翁主의 墳墓가 有한 바 翁主의 天性이 仁孝하며 具貞淑의 德은 一世에 垂하여 夫 金

月城府(名 ○○)가 死하매 十數日을 飲食을 全廢하고 晝夜痛哭하다가 드디어 夫君의 뒤를 따라 殉死하였으므로 其貞烈을 嘉賞하여 英宗大王께서 旌閭와 碑石 등을 수립하였는 바 親筆의 刻字와 共히 尙今存在하여 있다.

伽倻山

가야산은 남조선 유수한 名山으로서 山門入○에 淸風明月 兩峯이 ○立하여 數里에 ○한 바 百年老樹가 道路兩側에 森羅不絶하고 釣璜臺, 玉屏溪, 石門潭, 玉洋○等 絶勝은 道路兩岸으로 ○然○美의 勝景이요, 層巖 絶壁上으로 飛流瀑布는 來人去客의 精神을 ○快이 하며 臥龍潭上石門峯은 碧空에 ○立하여 西山照落을 凌○하고 西海岸에 ○然歸帆은 摩手俯示에 奇麗한 風景이라 九秋의 紅葉은 禮 四景中 最히 有名함으로 登山客의 常時 不絶한다.

報德寺

報德寺는 德山郡 伽倻山腹에 在한 創建한지 現今 69년이다. 李朝 大院君이 그의 親山 南延君墓所를 三國時代 伽倻 封墓地이던 山麓에 奉安한 후 高宗께서 寶位에 踐祚하신 고로 其 蔭德을 報答하기 위하여 寺字를 新建하고 寺名을 報德寺라 하였으며 他寺에 無한 七星閣 法堂과 御書閣이 有하여 淸淨淡泊한 寺院으로서 蒼松峯竹과 喬水老○은 仙界 別景임으로 詩人墨客이 接續不絶한다. 報德寺住持 具寬永.

大蓮寺

大蓮寺는 光時面 鳳首山中에 在한 바 距今 1천 3백 50여 년전 百濟 義慈王 16년에 沙門義覺과 道琛 禪 兩師가 最初 創建하였고 其後 新羅 文聖王 7년에 無染○師가 重創하였었다. 最近에 이르러 몹시 쇠락하여 雨露○○ 狀態에 있는 바 현재 閔雲波住持의 丹心努力에 의하여 그 完全한 復舊를 보게 되었다. 本寺에는 다수한 佛像이 安置되었으며 往古의 ○○를 자랑하는 石塔등은 境內의 佳麗한 風景과 상호하여 그윽한 情趣를 자아내는 바 있다.

東山公園

禮山市街 동부에 起伏한 山麓에 在하여 其絶頂에는 禮山神社가 있고 山上의 一眸로 능히 예산읍 전경과 멀리 無限川邊의 넓은 平野를 안중에 入할 수가 있으며 山腹에는 수목이 鬱密하여 春節의 櫻花와 九秋楓葉은 능히 風光의 異를 자랑할 수 있다 하겠다.

修德寺

修德寺는 德崇山麓에 在하여 三韓 古刹의 當당한 古式建物로 大雄殿의 法堂은 幾百年來 ○○를 蒸하여 古代藝術을 示하는 바 年來로 該寺 住持 宋○空씨가 巨財를 犧牲하여 一齊 重修한 결과 建物及 庭園등의 面目이 一新한 大修德寺 云在라 한다.

113. 매일신보 1934년 5월 7일

-禮山稅務署 業務를 開始-

今般 稅務機關의 獨立으로 因하여 論山, 唐津 양군을 구역으로 新設되는 禮山稅

務署는 郡廳構內 圖書館을 臨時廳舍로 지난 1일에 개소식을 거행하고 그 진용을 정돈하였다.

114. 매일신보 1934년 5월 11일

-插橋普校學年 延長熱猛烈-

예산군 삽교면은 3만여리의 면적에 1만 2천여의 인구를 가진 巨面일 뿐만 아니라 京南線의 중앙점이 되는 米○移出의 중요역이요, 경찰관주재소, 미곡검사지소, 금융조합지소, 우편소 기타 시장, 병원, 회사, 상점 등의 遼日 발전지라 하겠으나 초등교육인 보통학교가 4년제인 고로 지방 유지들은 학년연장과 教室增築을 계획 중인 바 동면 松山里 ○○○시는 200원, 동면 2리 金炳○씨는 50원, 동면 ○里 安鼎○씨는 50원, 京城 林炳○시는 100원을 동지 면장 ○益○씨에게 自願贊助하였으므로 제씨의 교육열성은 부근 지방에서 칭찬이 자자하다.

115. 조선일보 1934년 5월 16일

-善地主...金溶禹氏 稱頌-

충남에 굴지하는 대지주 金溶禹씨의 농감 兪宗植이란 사람은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석곡리, 봉산면 등지에 있는 토지를 지주의 승낙도 없이 합부로 30여명의 소작권을 파종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에 이작시킴으로 이작을 당한 소작인들은 지주에게 진정을 하느니 별별 원성이 충천하는 바 이 소작을 들은 지주 김용우씨는 즉시 유종식을 불러 무리한 행동을 질책하고 즉시 해고시키고 소작권을 모두 영구히 시켰음으로 전기 소작인들은 감사함을 마지아니한다고 한다.

116. 조선일보 1934년 5월 31일

-今年에 또 2個校 認可-

거번에 논산군 可也公普가 인가되고 22일에 예산 鷹峰公普가 인가되어 근일에 개교할 터이라는 바 금후 7교만 인가되면 충남의 일면 일교가 실현되는 것으로 이 모양으로 간다면 최초 예정연도인 13년도 이내에 완성될 모양인데 도 당국에서는 아무쪼록 속히 실현키로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117. 조선중앙일보 1935년 2월 7일

-여러 가지로 擄取한 禮山郡의 劉숨춤-

충남 예산 덕산면 ○○리 劉某는 3년 전부터 京城 모 지주의 사음을 보게 되자 이를 기회로 덕산면에 산재한 다수의 소작인을 ○○하여 2,3석지기 농사를 짓는 소작인에게 년 2회 이상의 賦役을 시키는 동시에 색조는 고봉으로 2두씩 받은 후 ○取人에게는 평형으로 주며 여름에 거름으로 썩은 밴당이 1두씩을 작인에게 나누어주고 추수 때에는 비로 3두씩 징수하는 등 작인회비라고 비 7승과 출포비라고 비 7승씩을 징수한 후 작업할 때에는 탁주 1대로 막음하고 타작할 때는 작인 줄 버는 평말로 되고 자기차지는 고봉으로 되는 등 각양의 방법을 다하여 작인을 착취한다는 바 요사이의 장고들 건 축중인데 각 작인에게 벼짚의 부역과 이영 3단씩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한다.

118. 조선일보 1936년 7월 29일

-多年間 懸案이던 禮山劇場 起工-

오랫동안 예산 시민의 화제가 되어 오던 극장문제는 이제야 해결의 서광을 보게 되었다. 예산읍 金鑛家 朴弼來씨는 만여 주민을 포용한 예산 대중의 위안을 제공 할만한 집합장소가 없음을 항상 유감으로 생각하여 오던 중 이번에 만여 원이라는 거액을 던져 예산 유일의 현대식 건축으로 800여명을 수용할만한 예술의 전당을 만년 반석 위에 세우게 되었는바 동씨의 금번 장거에 일반의 칭송이 자자하다고 한다.

119. 조선일보 1938년 3월 1일

-忠南 各地에서 出發, 驛마다 喜悲交至의 斷腸哀話, 農具들고 新興滿洲로-

-大田-

충남도의 만주국 집단 이민 770호는 정든 고향과 일가친척을 버리고 먹고 살길을 찾아 언어 풍속까지 다른 만주로 향하여 지난 26일 오후 1시에 제1차로 출발하였다. 논산방면에서 130명과 대전부와 대덕군에서 85명은 대전역에서, 연기와 공주군에서의 138명, 그 외 홍성, 보령, 서천, 서산 등지에서 413명을 합한 일단은 천안역에서 합동하여 도 사회과 알선으로 떠났는데 각 역두에는 친지와 친척들의 전송으로 매우 번잡하였다. 「잘 있거라, 잘 가거라」 하며 아우성을 치며 우는 자도 있어 보는 사람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만한 비극을 연출하면서 만주 별관을 향하여 떠났다.

-洪城-

북쪽나라 만주국 간도성 陳財溝로 보내는 이민군은 홍성군내에서 10호 46명과 서산군에서 온 18명을 일단으로 하여 지난 16일 오후 2시 30분 홍성역발 임시 이민열차에 초조한 행장과 함께 몸을 실리게 되었다. 정다운 고향의 봄빛을 등지고 애처로이 떠나는 그들을 전송하는 친족들과 관민 지기의 참집이 이 천여 명에 달하여 역두는 자못 혼잡을 이루었다. 李군수와 楡道議員의 의미심장한 송별사를 마친 후 만세삼창으로 성황리에 전송하였다.

-插橋-

대지를 뚫고 힘차게 내뿜는 기름진 봄소식과 고토를 등지고 삶의 길을 찾아 이역 만주땅으로 가는 경남선일대의 이민단을 실은 임시열차가 동선 삼교역에 지난 28일 오후 2시 반에 도착함과 동시에 이곳 삼교 등지에서 모인 5호 17명의 이민들이 차에 오르게 되자 송별하러온 그네들 친족 친우들의 주고받는 말 「부디 잘 가서 초지를 관찰하라」, 「잘 있거라」란 인사말이 끝나며 마주 쥐어진 손목이 떨리고 말없이 눈물이 흘러 옷깃을 적시게 되어 이민단의 출발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 온 삼교 시민 약 300여명들 가운데에서도 하염없이 「후우」하는 한숨소리가 장내를 더욱 압담케 하던 중 떠나라는 신호를 따라 우렁찬 기적 일성과 함께 철마의 바뀌는 돌기 시작하고 이에 응하여 그들의 안위를 축복하는 의미에서 삼교 權면장 발성으로 만세 3창이 있었다. 금번 행선지는 만주국 雙頂子라고 한다.

-廣川-

충남도내에서 금촌 만주국으로 이민 결정 호수 230호 중 지난 26일에 서천, 보령, 홍성 3군내 40호 200명은 광천 관민 유지와 초등학생 천여 명의 환호 전승리에 축복 만세소리와 함께 광천역을 통과하였다 한다.

120. 조선일보 1938년 6월 16일

-禮山 新陽小學校 附設 簡校 認可-

11일부 허가 충청남도 학무과에서는 13년도 사업 중 예산군 신양소학교 부설 간이학교를 지난 11일부로 인가되었는 바 금월 하순에 개교하게 되리라고 한다.

121. 동아일보 1939년 1월 14일

-中校設置 渴望, 禮山에 緊急問題-

禮山에는 2만 주민에 中學校가 겨우 農校 하나 라는 것은 매우 한심한 노릇이며 들건데 農校 期成會長 李鍾德씨로 기간 학급 증설에 대하여 增設費 4만원 豫算에 金炳○씨 장지로 1만원 자진 회사한 사실이나 불편한 신학기는 점점 가까이 오고 아직도 미결 집행치 못함은 일반 여론이 자자한 바 이것을 今春 3월까지 될 수 있으면 增築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한다.

122. 동아일보 1939년 3월 8일

-禮山農校 卒業生, 就職進級好積-

5년이란 장구한 동안에 蝨雪의 공을 닦고 정든 교문을 나서는 忠南禮山公立農業學校 제 25회 졸업생의 새로운 출발을 조사하여 보건대 대략 다음과 같은 好成績을 거두었다.

就職 : 金融組合 12, 東拓會社 1, ……

進學 : 平壤師範 2, 大邱師範 1, 京城師範 5, 專門學校 5, 合 46

일본 强占期の 禮山地域史

발행일 2002년 12월 31일

발행 예 산 문 화 원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247-11
전화 (041) 335-2441

인쇄 충 남 인 쇄 사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04-11
전화 (041) 333-2607

